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侵犯』確認決議案 理事會에遂上程

獨代表出席後十九日投票決定

十七日의聯盟理事會

【倫敦十七日發電通】十七日의聯盟理事會는 午後三時三十五分부터 開會하고 부루-스議長으로부터 對獨交涉經過에 關한 報告가잇슨後 同四十四分부터 特別秘密會에옴겨 獨逸의 國境侵犯을 確認하려는 佛、白兩國提出의 決議案에 關하야 討議를 開始하엿는데 마츰 그때 獨逸의 代表招請受諾返電(別電과如함)이 아브놀事務總長에게 到着하고 또 헷슈獨大使로부터 이든英外相에게 同樣의 通告가왓스므로 同四時 暫時 休憩하고 다시 午後五時三十五分 秘密會를 續開하야 同五時四十二分 公開會議에옴겨 부루-스議長으로부터 獨逸代表出席確定에 關하야 公式報告한後 佛、白共同決議案을 드듸어 上程하엿다 그리고 土耳其、蘇聯、智利諸代表의 演說이잇슨後 十九日朝 獨逸代表의 着任을 기다려 國境侵犯確認決議案投票를 行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十八日午後三時半부터 會議를 開하기로 約束하고 同七時十五分 散會하엿다

獨逸返電正文

【倫敦十七日發電通】폰·노이라트獨逸外相으로부터 聯盟事務總長에게보낸 獨逸代表招請受諾의 返電正文은 十七日夜 聯盟事務局으로부터 如左히 公表되엇다

三月十六日의 貴電을 感謝로서밧고 나는 이에 貴下에게 對하야 國際聯盟理事會가 佛白兩國政府에 依하야 提出된 問題審議를 行할期間中 獨逸政府는 폰·리벤트롭大使를 代表로 理事會에 出席케할旨를 通告하는 光榮을가진다 同大使는 十九日午前 倫敦着 그 任에 當할 豫定이다

一九三六年三月十七日

獨逸外務大臣 男爵 폰·노이라트

國際聯盟事務總長 죠제프·아브놀閣下

佛白積極的援助 蘇土代表가力說

聯盟理事會公開會議

【倫敦十七日發電通】十七日午後五時四十三分부터 同七時十五分까지의 公開理事會에서의 主要한代表의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土耳其代表아라스外相

土耳其는 理事會가 聯合하야 事實上 佛白援助를 軍事同盟과 同樣의 强力한 支持를與할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이러기爲해서는 나는 理事國全部가 理事會의 役割은 國際紛爭의 調停者인것과 安全保障의 維持者인것의 雙方을 包含한것이라는것을 此際에 宣言하고 이에依하야 理事國이 모다 로카르노條約保障國과 合體가되어 行動할가티하도록 하는것이 最上策이라고 밋는다 우리는 佛白兩國의 決議案이 實로 理由잇는것이라고 認定하고 獨逸의 條約侵犯을 可及的 速히 投票로써 確認하기바란다 그리고 佛白兩國에 完全한 滿足을 與하기爲해서는 理事會는 仲裁的立場에 옴겨서는 안된다 爲先 갓까지 獨逸의 非違를 糾彈할것이라고 밋는다

▲蘇聯代表 리트비노프外相

우리는 어떤나라가 聯盟을脫退하든지 國際條約을 不法하게 蹂躪하든지 統制를 휘날리든지한 結果 그나라가 特殊權益을 獲得하거나 或은 全歐洲에 向하야 新交涉條件이라는것을 高壓的으로 命令하고 或은 뜻대로 選擇하야 或은 國에 對하야 自國案을 他國에 强要할수가 잇스리라고 생각할수가업다 또如斯한 思想은 絶對로 排擊할바다 吾人은 新交涉이란것이 實際 平和를 願하는 諸國間의 連絡을 失케하고 現在 唯一한 國際的 政治機構인 聯盟을 破壞에 誘導함과가튼 基礎上에서 行하는것에는 絶對反對이다 吾人의 생각으로는 平和를 願하는 諸國은 條約違反國보담 一層 큰 權利로서 全歐洲諸國의 安全保障을 確立하기爲한 提案을 行하고 假面的平和를 排擊할 權利가 잇다고 믿는다 不徹底한 平和는 참된 平和가 아니오 도로혀 戰爭으로 誘導하는것이다 蘇聯政府는 로카르노條約에 依하야 提案되는 聯盟理事會에 依하야 採擇되는 모든 處置에 參加할 用意가 잇다는것을 玆에 確言한다

▲智利代表에드와-ㅈ博士談

智利政府는 佛白兩國의 獨逸非難에 對하야 獨逸側이 抗辯하고 잇는 以上 이雙方의主張을 海牙國際裁判에 옴겨 檢討케하고 公式判決에 압서 理事會의 諮問機關인 立場에서 報告를 理事會에 提出케할必要가 잇다고생각한다 이報告에依하야 法理的으로 條約侵犯이 確認되지안는限 智利代表는 理事會의 決議의 勸告에 對해서는 投票를 棄權할바게업다

로카르노條約 調印國會議

會議는今日도續開

【倫敦十七日發電通】로카르노條約調印國會議는 十七日午前十一時 開會하고 討議一時間半後午後零時三十分 終了散會하엿다

【倫敦十七日發電通】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英國外務省에서 開催되엇다

英國新提案을 佛國代表가拒絶

로카르노條約國會議서

【倫敦十八日發電通】十七日午後十時부터 再開된 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十八日 午前零時三十分 겨우 散會하엿는데 協議한大部分은 英佛兩國間의 論戰에 虛費되엿다 卽 플랑당外相은 이든英外相이 提案한 補足的保障供與의 暫行的協定에 關하야 逐次詳細한 質問을한後 이에不滿足의 意를 表明하고 佛白兩國이 侵略을 受한境遇에 英國의 自動的援助를 約束하는 部分에 關해서만은同意할수 잇스나 保障規定 全體로서 로카르노條約의 代案이 될수업는 多數缺陷을 包含한다고 指摘하야 英國案의大部分을 拒絶하엿다 그리고 兩國은 다시 熟考를거듭한後 十八日도 午後零時十五分부터 續開하고 右問題에 關하야 다시 議를 考究키로되엇다

理事會에佛國側不滿

【倫敦十七日發電通】聯盟理事會秘密會에 對하야 佛國代表部는 不滿의 빗을 보이고 休憩中 如左히 말하엿다 今日의 理事會는 打開方向에 一步의 前進도 發見치못하엿다

英獨海軍協定 英政府締結決定

【倫敦十七日發電通】英國政府는 來週 英米佛三國間의 海軍軍縮協定調印을 行하는同時에 英獨海軍協定을 締結하기로 決定하엿는데 當地外交關係方面에서는 右決定으로써 英國政府가 獨逸政府와 會談을 開始하고싶다는意向을 가진 證左라고 보고잇다 그리고 傳하는바에 依하면 愛蘭自由國政府는 海軍을 가지지 안엇다는 理由로 英米佛三國海軍協定에 調印을 拒絶한다는旨를 英國政府에 通告하엿다고傳하며 또南阿聯邦加奈陀聯邦도 亦是同樣의 理由로 同態度를 取할것이라고 風評되고잇다

英、新案提示코 事態緩和에努力

佛國은獨逸撤兵과『侵犯』確認要求

로카르노小委員會

【倫敦十七日發同盟】로카르노小委員會는 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英國外務省會議室에서 開會하고 新로카르노體制案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逐하엿다 劈頭에 英國代表 이든外相은 刻下 國際政局의 停滯를 打開함에는 締約各國政府가 各自幾分의 犧牲을 負擔지안흐면 안된다는旨를 强調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一、獨逸政府는 라인非武裝地帶로부터 進駐部隊의 一半을撤收하거나 或은 非武裝地帶에 要塞를 構築지안켓다는 旨를 公約할것

一、佛白兩國政府에서는 從來의 主張을 幾分緩和할것

一、이럴 境遇에는 英國政府에서 모든 保障條約에 基한 一切의 義務를 履行하고 佛白兩國이 攻擊을 바들 境遇에 軍事的援助를 與할 用意가잇다

以上 이든外相의 提言에 基하야 英佛白三國代表는 各各 覺書를 提出하야 刻下의 國際時局에 對한 自國政府의 立場을 闡明하엿다 佛國代表 플랑당外相이 提示한 覺書內容은 如左하다

一、獨逸政府가 로카르노條約破棄의 理由로 佛蘇兩國間의 相互援助條約案을 援用하고잇는 事實에 鑑하야 佛國政府는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對하야 同條約이 果然 로카르노體制에 抵觸되는지 그與否採決을 仰請할것

一、라인非武裝地帶에 進駐한獨軍은 一旦 撤收하고 重砲隊는 라인河左岸五十키로米地點까지 撤收할것

一、獨逸政府가 右提案을 受諾치안는 境遇에는 聯盟理事會는 卽時 獨逸政府에 對하야 經濟制裁를 加할것

一、라인非武裝地帶에 獨逸軍의 駐屯을 承認하는 以上 締約各國政府는 로카르노體制에 代位할 新安全保障體制를 確立치안흐면 안된다 新體制는 現行로카르노體制보담도 强力的인 安全保障을 提供하는것이 必要하다

各國代表의 覺書를 基礎로 討議는 前後一時間半에 亘하야 小委員會는 午後零時半 겨우 散會하얏다 繼續하야 十七日午後十時부터 英國外務省會議室에서 開會하고 英國代表 이든外相、맥도날드自相、佛國代表 플랑당外相、白耳義代表 방·질랑首相、伊太利代表 그란듸大使出席下에 理事會 今後의 議事日程과 英國政府의 新提案을 討議하기 始作하엿다

新軍縮條約 完成在邇

【倫敦十七日發同盟】新海軍條約起草分科委員會는 十七日에 續開하고 第一委員會를 終了하고 提出된 草案은 거의 完全한것으로 四十個條로 되엇다

第一編 建艦計畫通報

第二編 建艦年齡

第三編 質的制限

第四編 免除條項

의 四編에 分하여잇는데 十七日의 委員會는 免除條項을 中心으로 討議를 進行하야 字句修正을 決定한後 散會하엿다 修正草案은 十七日中에 印刷하야 十八日午前 委員會에 提出하고 最後的檢討를 加할터이다

安岳의教育熱

高普期成運動奏效

一記者

安岳高普期成會의 事業은 民族的자랑거리다。적어도 最近十餘年間을 두고 朝鮮에 잇슨事業가온데 그類例를 찾기가어려울만한 高貴한 事業이다。勿論 過去에도 社會를 爲하야 財産을 犧牲하며、教育을爲하야 物資를 提供한 이가 업는것이 아니나 그것은 흔히 既成團體의 未備를 채우기爲한 個人單獨의 事業又는行爲에 不過하엿던것이다。朝鮮에 잇서서 甚히 보기 어려운 現象은 多數의 一致協力에 依하야 한가지 事業을 創設維持하야 有終의 美를 내는 것이다。朝鮮은 일즉히 民立大學의 設立을 企劃하야 十三萬의 힘을 모오다가 結局失敗하고 마럿다。그後、白善行女史의 紀念館이 平壤에 생기고、崔松雪堂女史와 金泉高普가 設立되엿으나、이것은 다 各各 그個人單獨의 事業이오、多數共力의 結果는 아니엿다。故로 그것이 미치는 社會的 功績에 잇서서는 一樣이라고 할지라도 多數合力하야 一事를 成就한다는 共同協力의 美德上으로 본다면 여기 缺陷이 업다고 할수가 업는것이다。白善行女史의 紀念館은 現在의 그狀態만으로 滿足할것이 아니요、도한 崔松雪堂女史의 金泉高普는 現在의 그程度로 充足하다고할수 업는 現狀이나、누구 한사람 物質과 精神을 이에 補足하야 兩氏의 事業을 補完하고저 하는 이의 出現을 보지못하는것은 이 缺點의 所以라고 볼수밧게 업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一個人의 單獨事業은 그것이 아모리 大規模로 經營된다고 할지라도 그個人과 同時又는 異時에 잇서서의 物質的과 精神的協力이 업시는 永久的補完을 期할수 업슴을 알것이다。그러므로 社會的民族的大事業에 잇서서는 一個人의 百尺의 힘보다 萬人共同의 一分의 힘이 더 價値가 잇다는것이다。

이러케 생각할때에 우리는 安岳人士의 今番의 擧가 全民族的으로 크게 意義 잇는 事業인것을 알수가 잇다。安岳의 今番 高普期成運動은 世人이 周知하는바와 가티 金鴻亮、金庸震、金禧善의 三氏가 各十萬圓을 내노흔것을 動機로 始作된것이다。三氏는 한門中에 屬하는故로 嚴密히 말하는 共同協力의 말로 表할수가 업는것이나 三氏의 寄附의 뒤를 니여서 安岳全郡九個面住民이 全部 돈으로서 現金이 잇는이는 現金으로 土地를 가진이는 土地로、甚至於、家畜을 그대로、또는 婦女들 가온데서는 비녀 가락지에

그리고、그中에서 金氏의 萬圓、元氏의 三萬圓、金石氏의 三萬圓、崔林氏의 二萬圓의 出金은 共同協力의 카테고리(範疇)로 보아 意義가 큰 出金이라고할것이다。

우리朝鮮서는 共同事業은 巨額寄附者의 單獨事業처럼 알니워지는 弊習이 잇다。이러한弊習이 잇기때문에 一個人、或은 一門中의 出金이 너무 만흐면 다른 사람은 이와 協力을 안하려는 傾向이 잇슴을 본다。이러한 社會的弊習속에 잇서서 金氏門中三氏의 三十萬圓出金이 잇섯슴에도 不拘하고、이 四氏는 從來의 弊習에 물들지 안코、다만 그事業自體를 爲하는 마음으로 各各 그力量이 許하는 限度의 寄附를 提供한것은 實로 社會的價値를 가진 美擧라고할것이다。(完)

伊軍戰捷은誇張

英公使本國에報告

【아디스아베바十七日發同盟】伊太利政府當局은 北部戰線에서 赫赫한 戰果를 거두엇다는 旨를 宣傳하고잇는데 右戰捷報告에는 多分의 誇張이 잇서 에디오피아 駐剳英國公使바-톤氏는 以上의 事實에 關하야 十六日 本國政府에 如左히 報告하엿다

에디오피아 北部戰線에서 伊太利軍은 大捷을 거두엇다고 言明하고잇스나 右內容은 多分히 誇張되고잇는 事實에서 에디오피아 皇帝는 斷乎 排擊하고 끗까지 旣定方針에 邁進하고게시다

蘇土修交條約 批准書交換

效力更新十個年

【莫斯科十七日發電通】蘇聯駐箚土耳其大使는 十七日午前 蘇聯外務省을 訪問하고 昨年十一月署名을了한 蘇、土中立修交條約批准書를 交換하엿다 右를 依하야 蘇、土條約은 今後 다시十個年間 效力을 持續하기로되엿다

獨問責案回繞코 英、佛白依然對立

佛國은問責案審議를極力主張

英、『歐洲處理』確立力說

【倫敦十七日發同盟】十七日午後十時부터 開會된 로카르노小委員會에서는

一、英國政府의 和協試案

一、佛、白兩國政府의 問責決議案

을 基礎로 審議討論을 始作하엿다 委員會는 夜半 極度의緊張을 보여 前後二時間三十分에 亘하야 十八日 午前零時三十分겨우 散會하엿다 問責決議案先議를 主張하는 佛、白兩國代表와 和協提案으로 局面의 圓滿打開를 圖하는 英國代表와의 意見은 依然 一致를 보게되지안엇다 理事會는 十八日 午後零時十五分부터 다시討議를 續行할 豫定이다 그런데 英國政府의 和協試案은 如左하다

一、佛蘇兩國間의 相互援助條約의 로카르노體制와 相容되느냐 아니되느냐 獨佛兩國政府는 海牙國際司法裁判所에 裁斷을 仰請할것

一、라인河兩側에 非武裝地帶를 設定할것

一、라인란드에서 獨逸政府는 要塞를 構築할수업고 佛國政府도 또한 現狀維持를 約束하고、自國의 要塞를 强化치안을것을 公約할것

一、新平和機構를 確立하기까지 非武裝地帶에 國際警備軍을 配置할것

英佛白三國代表가 提示한 覺書에 對하야 愼重檢討를 加한後 『西歐新處理案』이 確立될터이다 佛國代表 플랑당外相은 獨逸政府의 問責案審議를 極力主張하고잇슴에 對하야 英國政府는 『西歐處理』의 義務라고 强調 獨逸政府乃至聯盟理事會에 旣定案固執을 極力反對한것으로 解釋되다

【倫敦十八日發同盟】로카르노小委員會에서 英國의 和協試案外

政策發表와 各派批評

陸軍 【東京電話電通】發表된 現內閣의 政策에關한 聲明에對하야 寺內陸相以下 陸軍中央部는 眞正으로滿足할것은 아니나 從來의 實情으로보아 此種 聲明은 實行誠意가伴하지안는以上 아모런 價値도업는것이라는 見解에서 用語配列等의 末節에拘泥함을 避하고 十七日의 閣議의 廣田首相의發言에 暫時信賴하고 專혀 今後의 實行을 監視하야 이進展如何에따라 態度를 決定할 意圖이다

海軍 【東京電話電通】政府의 今回의 政綱聲明은 廣田內閣의 大綱을 示한데不過하야 金이 나올는지 돌이 나올는지는 今後의 實行如何에 잇는줄안다 海軍은 政府의 將來施設을 嚴重히 監視한다

貴院 【東京電話同盟】政府의 政策聲明에 對하야 貴族院側의 批評은 如左하다 政府의 聲明을 보건대 實로 훌륭하다 다만 國民이 傾聽하려는 庶政一新의 徹底에 關하야 거의 不觸한것은 매우 섭섭하다 今後는 지금 緊張한 精神을 오래 繼續하야 聲明에 실린 모든 內容을 忠實히 實行해주거바란다 齋藤內閣도 岡田內閣과함께 훌륭한 聲明을 發表하엿스나 모다 거의 無爲로 終了하엿다 이는 困難과 事務에 沒頭하야 最初의 緊張한 精神機能을 妨害한때문이다 廣田內閣은 차레로 일어나는 困難과 事務에 沒頭치 안코 大局에서서 理想을 放棄하지안코 不斷의 努力을하

內閣調査局擴充코 新政綱을具體化

內閣審議會는廢止

【東京電話電通】廣田內閣의 政綱政策聲明은 當初의 陸軍側의 意向을 基調로한 原案을 相當한 程度로 緩和한것가튼것인데 今後의 具體化에 關해서는 全閣僚間에 各各 全般에 亘한 政策私案에 關하야 意見交換을 行하고 右聲明에 基하야 今後 具體的 政策을 樹立해서 現內閣의 主義綱領을 實行에옴길터이다

一、設置以來 그機能을 十分 發揮하지못한 內閣審議會를 廢止하고

一、現內閣의 政綱을 具體化하고 참으로 브레인트러스트의 機能을 發揮케할 內閣調査局의 擴充을圖할것

이라는것인데 政綱의 主要한者는 如左하다

一、文教刷新과 國民生活의安定

一、財政의 刷新改善

一、産業政策의 確立

一、行政機構의 更新

一、吏道의 振肅

約國會議와 併行的으로 英本國政府와 自治領各政府間에는 頻繁한協議를 行하고잇는데 加奈陀、南阿聯邦을 비롯한 各自治領政府는 佛國이 主張하는 對獨經濟金融制裁에는 强硬한反對意向을 表明하고잇서서 此等動向으로보더라도 對獨制裁實施에는 아마 이르지안흐리라는것이 一般의 觀測이다

民政 【東京電話電通】民政黨大麻幹事長談 廣田內閣의 聲明은 一般的이거나 넘무도 抽象的에 不過한것은 아마 吾人의 豫想하는바일것이다 다만 內閣이 時弊를 洞察하야 庶政을一新하고 斷乎한 決意로써 難局을 打開하려는 精神은 이를 諒解할수가잇다 要는 聲明보담도 實行에잇다 政府는 잘 이精神에 基하야 速히 具體的政策을 樹立하야 이非常時局의 打開에 邁進하기를 切望한다

政友 【東京電話電通】政友會 松野幹事長談 廣田內閣의 發表한 政綱이란것은 그精神에 잇서서는 모다 共鳴할것이다 그러나 國民이 新內閣에 期待하는바는 그內容을 充實케할 政策如何에 잇슬것이다 따라서 國民이 今後 그精神에 基하야 硏鑽을 싸하 速히 이를 具體化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實現하기를 希望할수박게업다。

國同 【東京電話電通】國民同盟淸瀨幹事長談 政府聲明에 對하야 我黨은 非常히 期待를 두엇섯다 그런데 이를보건대 부질업시 抽象的이오 政治的인 熱辭를 羅列한데 不過하고 무엇을 把握해서 조흘는지 거의 諒解키困難하다 今回의 事件은 슬퍼할것이엇스나 이를 一轉機로 庶政改革에 邁進하면 도로혀 國家를 爲하야 幸福이라고 생각하고잇섯다。이사이에서 軍部、特히 寺內陸相의 意見에는 들을바 잇섯는데 廣田首相은 이機會를 捕捉지안코 如斯한 凡庸한 聲明을 한것은 遺憾千萬이다

八面錄

◇ 萬人、注視中의 新政綱政策十七日 드듸여 發表。

◇ 內容인즉 日 國體明徵、日 國防充實 日 自主權의外交 日 國民의 生活安定等으로 別로 新奇한 點이 업서。

◇ 稅制의 改革、金融機關等 財政經濟의 刷新 行政機構의 更新等이 눈에 띄이나、어쩌도 社會의 影響을 생각해야 볼것인지 어룹어룹。

◇ 此上事 악상 責任잇는 자리에 안저보면 急激한 革新은 困難。

◇ 獨逸이 『라인란드』를 侵入햇다는 事實을 確認하자는 佛國案에 各國이 贊意 表明。

◇ 侵入한것이 確實한때 무슨 必要? 外交란 이러하야 時間을 虛費할뿐。

◇ 世上이 騷然한때 朝鮮은 入學難으로 야단。

◇ 언제 이중을 깨뜨리 亨手를 볼것인고。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 忠南北出張中 十八日午後七時二十五分歸任

▲鹽田正洪氏(總督府文書課長)同上

▲池田政銀氏(秘書官)同上

▲村田孝生氏(前總督府御用掛陸軍中佐)二十一日午後三時 京城驛發新任地本鄕隊에赴任

▲小川要次氏(京城中央電話局長)新任人事次來社

▲江頭恒一氏(前京城中央電話局長)退官人事次來社

經濟斷交英自治反對

【倫敦十七日發電通】로카르노條

喘息·神經痛

첫봄에、심한發作과痛症이인다

正月부터 심한냉증으로써、천식(喘息)、신경통이생겨、이것이시호번조하는때에、심한발작과통증의원인이됨으로써、속히치료치안흐면아니된다。이병은 술、담배나성병의독으로、피가흐려서악화됨으로생긴다。예하면신경통으로알흔발은다른편발보다찬것이그증거이다。

『이마쯔민』은 혈액중의병독을、변으로부터배설하야、병의원인이되는、호흡곤란이거하야그순환을양호케하며、속히、기침、담、통증을제거하며、인후가씩—씩—걸—걸—하는것을낫게하며、발작과통증을예방하면서전쾌에로인도한다。효력이속하고도、절대부작용이업다。지금까지불치지병이라고방서하는다수의통병자도、본제로써전쾌하엿다。천식、신경통으로항상발작이나통증에고통밧는분은、『이마쯔민』을복용하고속히전쾌하라。大阪市大仁本町、今津化學硏究所에 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면 說明書와 養生法을送呈 一일분 一원四〇· 卅日분 六圓五〇 五十日분 十원 전국약점에서판매함

寧邊崇德學校男女生徒募集

一、男子部 第一學年 約五十名

一、女子部 第一學年 約五十名

一、出願 三月二十八日限

一、試驗 三月三十日、三十一日

(平北寧邊城內)

東洋自動車學校生徒募集

○入學隨意。免許證獲得。責任教授。就職紹介

(元京畿道自動車運轉手試驗官) 校長 滿見良

京城府武橋町三一·電本(2)五四〇二·振京一〇六五九

多收穫

寒暖各地大好評 無類增收水稻珍種『大華金光』發見 無肥料로一穗五百粒從來보담四倍增收絶對多收穫大利 播期切迫試用一袋(廿粒)三錢 京城樓下町 振京 金富農社

早熟 病虫害無 好 一穗粒着五百餘 致富大利

漢方醫學講習書

成周鳳 著

漢裝菊本三册定價四圓五十錢 (送料五十錢)

本書는 出版未久에 四海諸位의 大歡迎을 바더 絶之되고 또再版한바 册의內容은 百家醫藥書를綜合하야 時代에適合하도록 朝鮮文과 漢文을交用하고 人身臟腑經絡과 病理와治法을 說明易解케하야 斯學硏究에 貢獻하는 漢醫學의 振興을 冀望하는所以올시다

發行所 大田府本町二丁目一〇六番地

中央館

當る十八日大公開(晝夜三回)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illegible]

漫畵

文武太平記

曉の魔人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 完成記念超特作 文武太平記 原作 新興脚本部合作 脚色 陶山密 撮影 古泉勝男 應援監督 川手二朗 監督巨匠 曾根千晴 嵐寬壽郎、杉山昌三九 主演 大久保清子、嵐德三郎、五十鈴桂子 助演 ユーモアと、スリルに富んだ寬壽郎獨特の明朗篇!

新興東京、京都、高田プロ合同作 オールサウンド版 曉の魔人 高田稔、伏見信子、山路ふみ子、高津慶子、立松晃、霧立のぼる、河津清三郎、月形龍之介、歌川八重子、清水將夫、森靜子、久松三 津枝 大競演 新鋭オール・メンバー出演 原作 吉見激男 脚色 如月敏 監督 吉田信三 撮影

夏目先生의お坊ちゃん より、オール・サウンド

千馬興業會社提供漫畫 特急艦隊 全一卷 亂痴さはぎ 全一卷

永樂町 電本(2)三五

眼耳鼻咽喉科增設

輕費診療 大衆醫院

貫鐵洞一三五(우미관뒤골목) 電光五二〇四(오이사、オイシャ)

內科小兒科 金重呂

眼耳鼻咽喉科 閔瓚鎬

外科皮膚梅科 崔瑾栢

血液檢査每週三回施行 一般檢査無料

武田製藥品

高度의 호르몬不足에 生殖器性神經衰弱에

男性ホルモン(남성호르몬) エナルモン(에나르몬)

初老、老衰期의生活機能減退、靑春、壯年期의生殖器性神經衰弱

エナルモン은、減退하는睾丸組織을賦活하야生活機能을更生식혀서老衰症狀을恢復식힐뿐아니라新陳代謝、血色素、赤血球數、體重增加를招來하야、疲勞를恢復식히고生殖器性神經衰弱을恢復식히는効果가顯著한男性ホルモン이다

特히本劑의注射는老衰期의老衰恢復에試用하야著明한効果를보는中이며以來政治家、實業家、學者、文人等의賦活劑로서近時臨床家로부터賞讚의實用을밧고잇는中이다

注射液 錠劑 [illegible]

【文獻】은、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에서 送呈

川崎市大宮町 帝國臟器製藥株式會社硏究所 發賣元

入學亂의뒤를뒤저보면 (二)

私學의增級、增募를 當局不許可主義

峻嚴한定員制의물결에밀려 入學豫備軍大量彷徨

총독부에서는 작년이래 각학교의 신입생입학허가에 잇서 각학교의 정원초과 입학에대한 엄중한취체를 하여왓다 이에대한 엄달은 각도를 통하야 학교당국자에게 수차 통고되엿고 금년에는 중등학교이상의학교에 정원을 초과하야 만히입학식히는학교는 엄[illegible]기때문에 매년격증하는 중등학교지원자의 대번람과 아울러 이것이 입학난을 더크게 한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각사립 중등학교에서는 이와가티 해마다 더심하여가는 입학난을 완화하고저정원증가에의한 학급증설을 신청하나 학무당국에서는 대게인가하지안는 상태에잇는것도 사실이다 학무당국이 주장하는바에 의하면 정원증가나 학급증설을 신청하려면 이것을 실현식힐에필요한 교실과 시설의준비 교원의 조직과 수효기타재원에 대한확실한 게획을세워가지고 신청하면 인가하지만 다만 더 모집하겟다는 막연한요구에는 학교의 위생상과 중등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의미에서 인가할수업다는것이 사립학교에 대하야 정원증가의 인가를 하지못하는 리유라한다

그러나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야 한학급정원 오십명인것을 관공립학교는 일할 사립학교는 특히 이할을 더수용할수잇게 통첩에의하야 재작년부터 실시하여온다고하며 따라서 이이상 정원을 초과하야 입학을 허가하는때는 단호한취체를 한다는것이다

"相當한準備업시는 增級은敎育上、자미업다" 大野學務課長 談

전긔의 중등학교의 정원증가문제와 입학난에대하야 총독부대야(大野)학무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공립학교의 학급증가 측중원 신청은 재원기타에 확실한 게획이잇서 인가를 신청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재원은 준비함이업시 학급증가를 신청함이만타 사립학교라도 재원을 맨드러노코 교원의 조직과수효 교실의 준비와 시설의 개선등에 관한 일정한 게획과 그구체화가 잇슨후에 학급 증가를 신청 하면 물론인가한다 그러나 현재조선내의 사립학교는 모도재정난에 빠저잇슴으로 사실상에잇서 현재이상정원을 느릴수가 업는것이 사실이다 교실도업고 기타의 설비도업시 또교원도부족한 상태에서 학생의 정원만 늘리엇자 학교위생과 교육상자미업슬뿐이다 그러므로 학무국에서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야 재작년부터 공립학교는 정원의일할 사립학교는 이할씩을 한학급에 더수용하여도 무방하게쯤 통첩의 형식으로 사실상은법규를 수정한것가티하야 입학난의완화책을 강구하여왓섯다』

尹美子 李玉蓮 (以上五〇名)

徽文高普

許鎬 朴承徽 張瀚星 姜致錫 金洪文 趙命植 梁俊錫 金斗鎬 李錦浚 李鍾薰 鄭聖容 宋在雄 尹奎顯 吳東洙 李英馥 韓在坤 李鉉秀 李光雨 高柄湖 權相泓 金大淵 李陵寧 崔鵬鴻 尹義漢

權容鎭 李觀熙 金斗欽 閔丙赦 金熙洙 南廷直 鄭現澤 辛泳吉 鄭璟世 崔在鎬 李錫烈 金學悅 李能宰 洪鼎植 李昌寧 金東先 金宣鎬 任完彬 車奎熙 黃仁永 洪元杓 鄭正鎬 李惠求 洪性鎔 李潤星 金義基 鄭漢昌 金甲煥 閔丁基 李興根 李世鎔 李聖根 朴文喜 李東憲 安永祚 柳在衡 吳世俊 韓英煥 文泳昊 閔泳琮 洪南植 李南珪 李鍾高 鄭在東 朴光鉉 李晏海 李鍾玉 宋鉉九 姜秋淳 朴在寬 金庚在 金寅植 金龍振 白炳浩 朴元錫 李相根 趙一濟 張錫漢 魏續炫 權五星 文炳允 姜蒼周 金振海 李顯商 崔在明 吳寅煥 姜榮植 金昇國 朴宗根 金班基 金容文 李鉉熙 金鶴泌 金元經 朴玩 李鍾熙 金寶煜 李濂彭 洪炳喆 金濟瑛 李根明 李癸和 南龍祐 金明鎬 任聖淳 尹炳斗 金熙世 李大杜 孔在鉄 黃道永 兪駿 朴相休 李榮春 金在昊 朴取善 金東鎔 權炳浩 吳禮根 黃昌夏 鄭炳泳 李鍾聲 洪英善 金圭珣 朴鎭遠 宋奎顯 成始豊 權泰鼎 閔泰基 曹圭堅 李暐熙 田鴻燮 南萬熙 尹益相 徐無忌 金浴鎬 申泰麟 金完植 洪淳昶 崔錫範 李漱濟 李廷馥 崔植 李章雨 李振榮 奉俊根 朴鵬緖 成一慶 申百雨 安智承 金周昇 李昌九

法衣에싸인前科者 念佛로婦女詐欺

一黨二名、東大門署에모다就縛

십칠일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 중노릇하는 두사나히를 인치하야 취조중인데 어제그내용을듯건대 본적을 평양부 서성리(平壤府西城里) 이십구번지의 이십사호에두고 주소일정티못한 전과이범 류창진(柳昌鎭)(三三)과 본적을 양주군 장흥면부곡리(楊州郡長興面釜谷里)에 두고역시 주소가 부정한 전과일범 류일순(劉一順)과 미체포의 김학수(金學洙)(三五) 세사람은 시중청하려다니면서 박갓주인업는 집에가서는 감언리설로 안주인을 속여 금품을 사취하엿다는데 삼월초순경 시외숭인면도항리(崇仁面敦岩里) 이백사십오번지 최성녀(崔姓女)의 집에가서부적을 주면서 백미와 돈일원사십전을사취하고 이에맛을어덧든지 십이일 세사람이 공모하야 한사람은 밧게서경계하고 두사람이 그집에 드러가서 최성녀를보고 금년은 병자년인데 당신에아들은 금년사월달이면 죽을운수이니 이것을 예방하라면 금부처 가튼것을 부처님안헤드리고 기도를 올녀야한다고 감언리설로 속여금반지와금귀이개 약오십원가량 사취하고 행방을 감추엇다는데 그후드러오주인안테 그런말을하야 비로소 속은것을알고 소관주재소에 계출하야 이래수사중이엿든것이라하는데 여죄가만흘리라한다

淑明女高 十八日에卒業式

부내숙명(淑明)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십팔일 오전열시부터 그학교강당에서 제이십칠회 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졸업생은 모다 일백이십칠명으로 그중약삼분의일은 상급학교를 지원한다고한다

愛犬黨二省할일!

昨年中狂犬被害百卅九名(京畿道)

경긔도위생과의 조사를보면 작년일년동안에 도내에서 미친개에 물린사람은 일백삼십구명으로 그중두명은 공수병(恐水病)에걸리여죽고마럿다 경찰에서는 광견병발생을예방키위하야 약륙천마리에게예방주사를 노코 오백이십사두를박살한데도불구코 칠십삼두나 광견이발생하야 전긔한바와가티 일백사십여명이나 물린것이다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함에도 광견병이 류행하게되는 원인은 임자업는개나 또는 임자는잇서도 계출을안한개다 방주사를 맛지안코 팔방으로 라다니며 여러개와 접촉하고또는 무려뜻고 싸우는데서 광견병이 전염되는것이라는데 [illegible]는사람은 반다시 계출하는동시에 예방주사를 경찰에서지시하는대로 틀림업시 마추어사람의 피해가 업도록 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冷害地帶를이번에는 慘、大風雪이蹂躙

草根木實도 눈아래 파뭇겨서 災民雪上加霜의窮境

東君은거짓말쟁이

【咸興支局電話】 함남풍산대 풍산(豊山)등오군에는 과거삼년동안 거듭한흉작을일우워서 초가을 추수긔부터 귀근의 위협을바더오다가 요지음 춘궁긔(春窮期)에는 오직냉수비께 입에너흘것이업는 자못비참한상태에 절박하고잇섯는데 지난십륙일 밤부터는 희유의 대설이 나리기시작하야 삼칠일아츰까지 계속되여 전긔오군은 이척내지오륙척의적설이 잇섯스며 강설오직후에 또 십팔일아츰까지 일주야동안이나꼭풍이불어 대취설로인하야 장소를따라서는 흥은십여척의 척설을보게되엿슴으로 각지간의 교통은 전부두절되엿스며 더욱이 리재민들이 겨우연명하여나가든 초근목피도 캐러갈수업게되여 눈속에무친재민들은안저서 굶고잇슬뿐이라는데 이적설이언제나 풀릴는지재민들의 전도가극히우려되는가운데잇다

咸南冷害災民救濟費 三十萬圓程度로削減

함남지방의 랭해(冷害)리재민의 구재에 대하야는 함남도당국의 구제요구액은 팔십만원의 거액에달하나 그간총독부와 [illegible]의 사정관계로 약삼십만원정도로 감액될모양이라는데 국고보조는 약삼분지이라는데 특별회의 개회가 느저지과게로재원은 적립지출에서될터이라한다

本社講堂消息

십구일오후두시부터 본사강당에서 채부동(彩府洞) 일백십일번지의일호 태완선(太完善)군과 통의동(通義洞) 백번지 김길순(金吉順)양의 결혼식이 잇슬터이며 신랑은 금춘법전(法專)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식산은행에 취직한수재요 신부는 동덕(同德)여학교를 졸업하고 현재서대문 금융조합에 근무하는 재원이라한다

天氣豫報

七四〇粍의優勢한低氣壓은 北海道北部에잇서서 北東으로進行中이고 七六〇粍의高氣壓은 中國北部로부터 朝鮮으로擴大되고 거기서부터 氣壓은 本州方面으로 低下되고잇다 滿洲、朝鮮은快晴、南朝鮮및日本內地는曇天、北海道北部樺太는降雪이잇다 滿洲、朝鮮의氣溫은 零下되여 昨朝부터十度內外나렷다

豫報 京城地方 今夜晴一時曇 明日同 京畿道全區 今夜同上 明日同

昨日最高 零下二度九分 今朝六時最低 零下九度七分 今日正午 零下五度三四分

齒專軍이優勝

問題만흔官專蹴球 亂鬪劇演出後

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主催의 第九回朝鮮專門學校蹴球大會決勝… 醫專對 齒專戰은 昨年十一月十日에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어 競技中途 選手間亂鬪問題로 一時中止되엿다함은 그當時報道한바어니와 主催側에서는 此競技의 雜行을 豫測하고 一切을 朝鮮蹴球協會에 委託하야 지난十七日 午後二時卄二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金命淵氏 主審아래 齒專先蹴으로 繼續擧行한바 前半에 兩軍一對一의同點으로 後半에드러가 『타임업』十二分을남기고 齒專選手의粗暴한파울에對하야 醫專選手亦是憤然히 對抗하야 兩便應援團까지 球場에뛰여드러 一場의亂鬪劇을演하드니 마츰내 醫專이棄權하야 齒專이 優勝旗를 獲得하엿다

올림픽籠球候補 李、廉、張三君 合宿練習次渡東

伯林올림픽大會에 派遣될 籠球第一次候補 李性求(進明敎員) 廉殷鉉(延專) 張利鎭(延專) 三君은 來二十二日부터 東京YMCA코-트에서열리는 第一回合宿練習에 參與코저 二十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車로 渡東할터이라한다

都市集中의富豪들 巧妙히脫稅行爲

教育費等府의收入에大打擊 府에서大大的으로摘發豫定

근년농촌의 세금부담이 현저히 증가 되엿다고 지방의 대지주들은 부담과중을 피하는것이유일한 목표로 도시에 집중되고잇는것이만허서 경성시내에도 근년에 지방의 부호들이 적지안케 모여들고잇다 그때문에 지방에는 면(面)가튼곳은 재정수입이 줄어 보통학교 비용가튼것이 크게감소되며 곤란을당하고 잇는곳도 만흔상태이다 그런데 이들부호들은 농촌에서 부담과중을 피하여 서울로이주하여서 단순히 부담의 경감을 목표하는것만이아니라 교묘한방법으로 탈세(脫稅)행위를하고 잇는것이만타 즉 경성부의 부세조례(府稅條例)에의하면 삼개월 이상거주자에게 한하여 부세를 징수하게되여잇는것을 악용하여 경성에실상으거주하되 자긔가 거주하는것으로하지안코 자긔아들이나 [illegible]들의납세의 능력이거이업는자의 거주로하고 지방에서는 서울에 거주한다고하고 서울에서는 지방에 거주한다고하야 삼개월이상의 납세의무거주긔간을 피하고잇다는것이다 그리하여 부세에속하는 교육비까지 부담치안코려고 철면피의 행위를하고 잇다는것이다 그래서 경성부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부덕한부호를 철저히조사하야 탈세를목표로 거주를이동하는자는 부세조례의경성부윤이 삼개월이상거주자로인정한다는 조문을 적용하여 납세케하려는것이다 현재 이러한탈세행위를하는 의심을밧고잇는자중에는 경향간부호의 반렬에올을상당한거부도잇다고한다

엄마가빨래간사히에 아기가불에慘死

"왜아기를혼자두고댕김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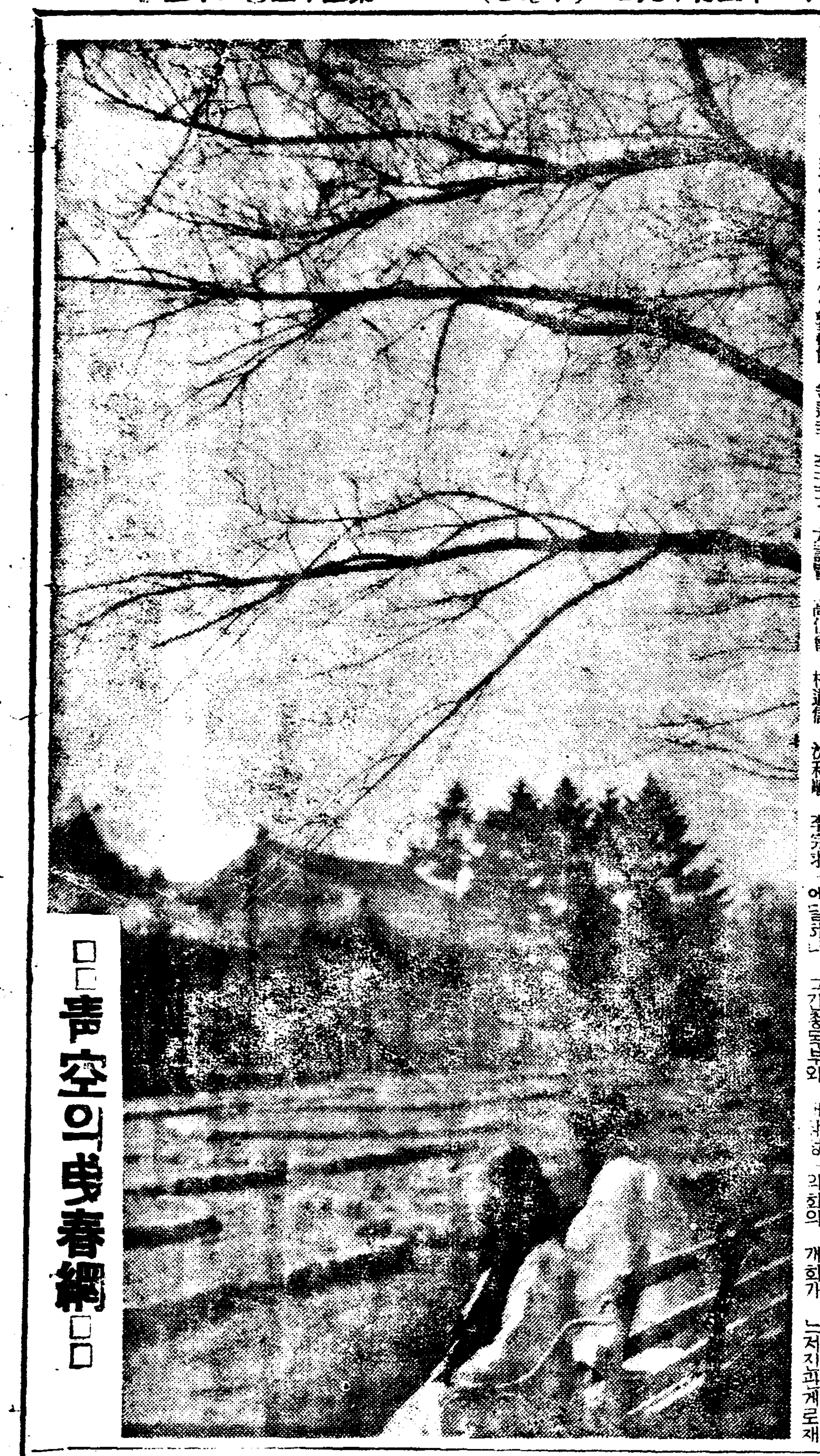
지난십일일 오전여덜시삼십분 경긔도시흥군서이면 안양리(始興郡西二面安養里) 리석식(李石植)의 안해 최범산(崔範山)(二〇)은 그의 아들 리춘영(李春英)(二)을 방에다 누혀노코 빨래를 간사이에 방바닥에 뚜러진 쥐구녁으로부터 불길이 올러와서 불이나서 전긔 춘영은 무참하게 타죽엇다 소관경찰에서는 고현장을 검시한후 최범산을 과실치사혐의로 취조중이라한다

中等校合格者

貞信女學校

東光子 康福淑 劉貞愛 李承德 鄭福信 金蓮圭 李玉子 太壽賢

鄭雲鶴 沈藏喜 羅月娥 崔粉景 金良順 鄭順喜 羅月蓮 鄭己順 金順培 李學善 尹貞愛 池癸昌 朱圭辰 李蓮淑 金貞婉 金耳化 成喜順 金杜環 李淑子 安貞姬 朴淑子 吳孝心 吳慶愛 閔丙琳 錢玉姬 金淑東 李貞淑 柳貞愛 吳順禮 金貞信 張誕實 金昌培 鄭德禮 李春子 李淑子 李毓甲 高仁曾 朴道信 沈利順 李完求



□□靑空의 早春網□□

今年의 籾摺精米作業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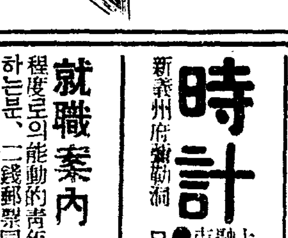
얌마ー純디ー젤・얌마ー籾摺機・얌마ー米撰機・얌마ー發動機로決定하십을!

堅型 모-든點으로서 絶對他의追從을不許함 燃料費一錢强(每時一馬力當) 專賣特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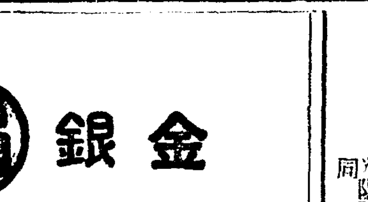
橫型

籾摺機는 十年期얌마-보다優越한것이다 全自動調整機附

唐箕附 千鳥 平面兼用 末廣



立線米撰機 米撰機中 얌마-는 專賣特許로 農林省推薦機 各府縣御指定



오후쉘도式 內地에서가장多한 需要者를有한것은 얌마- 石油 輕油 發動機뿐

力武式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取扱簡易能率多大 各府縣御指定

申込ハ至急 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驛前 長電本局(2)一〇〇三

新入會員大募集

新春特典 比際普通科 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 通하야 誠實繼續者 게는 各其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賞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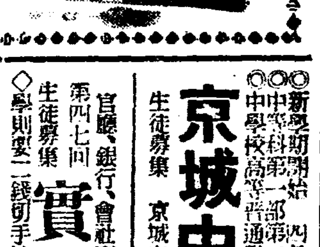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 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普通科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本會의講義는 每月 刊行 無代進呈

新發賣品 ダイヤル手提金庫 躍進日本이나은 新秀品 手提金庫는 ダイヤル時代 專賣特許 東京、淺草 製作發賣元 國松商會 電話淺草七二四番 振替東京三六〇五九番



京城中等豫修學院 新學期開始四月七日 中等科第一部第二三部 各中學校高等普通學校商業學校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

實踐簿修學院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 第四十七回 生徒募集 學則要二錢切手 京城府黃金町

陸地測量部 五万分一 地圖販賣元 目錄進呈 京城府[illegible] 和信商會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本業副業 大阪天王寺區 榮本舖

朝報案內

低利 資金及高利債借替 叮嚀親切取扱 鍾路一ノ三九榮商會 朴永赫

時計 上海某外人商館 融資遺分品引受 市價半額提供 型錄無代進呈 新義州府 日獨洋行

就職案內 農村都市勿論 程度高의能動的靑年으로 遊游度日하는분 二錢郵票同封至急照會하십시오 安東縣五番通 文錢堂

당채색 世洋行

◎急告 世富關係비商號를假用하야奸利를取하는 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賢은照亮하시옵소서

當選謝禮 今般不肖等이 光陽郡玉谷面議員補選에 有權者諸賢의 深厚하신聲援으로 當選되앗기玆에 紙上으로 謝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一年三月 日 光陽玉谷面新錦里 同 廣英里 李永榮 朴

メガネ 京城驛 檢眼無料

[illegible]病院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品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藥品 有名賣藥 京城 山

壽堂 光化門 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優美館 二十日부터大公開! 午前十一時 午後三時 午後七時二十分 上映時刻은左記와如히變更 全發聲日本版 大作 의男子 라마레 主演 春香傳 大規模의광란을敵으로 鄕土藝術의王者

眞正한 高級眼科藥

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

로ㅡ도안약

井上獨逸博士處方
中尾藥學博士指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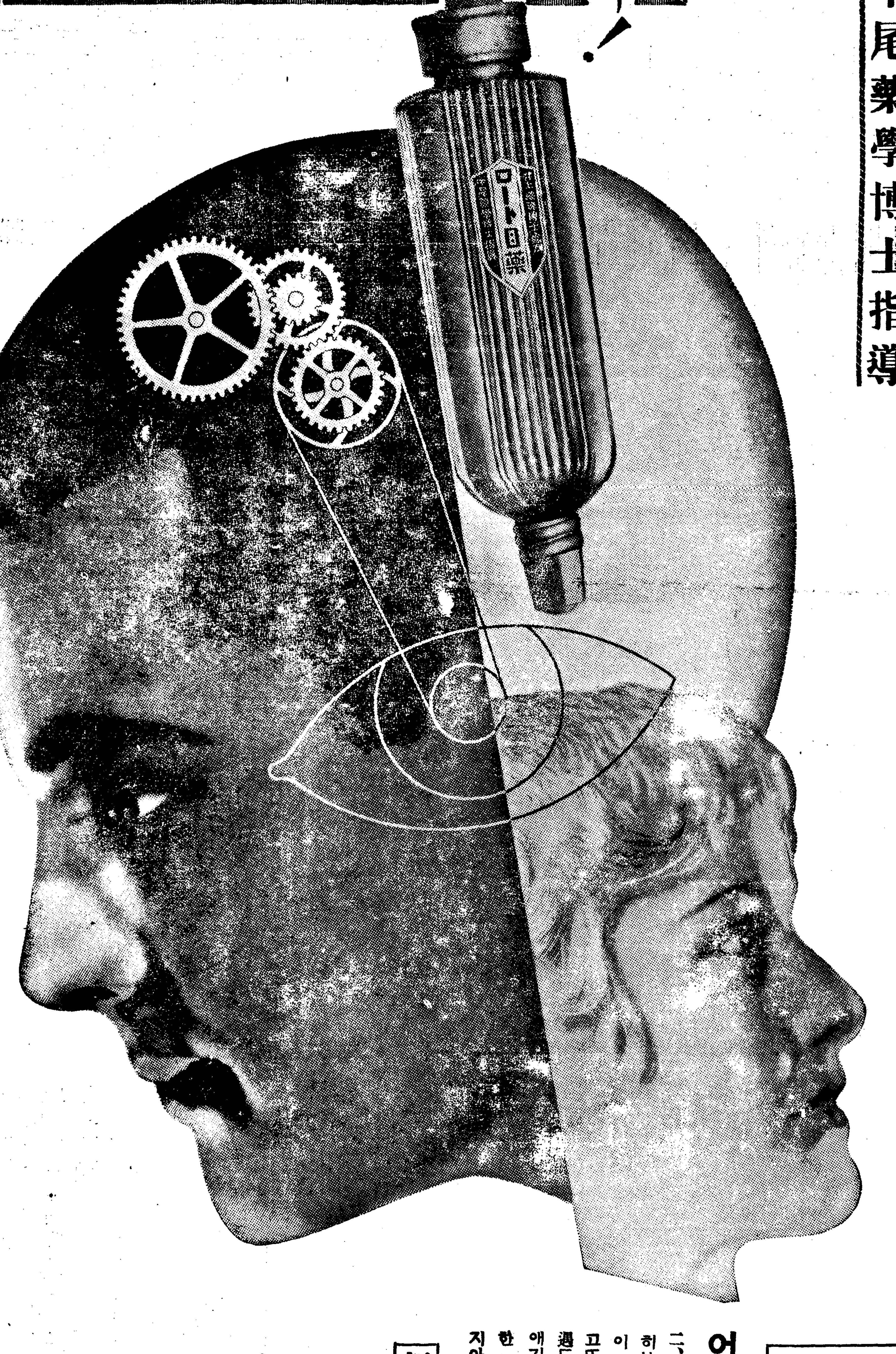
ROHTO

眼은腦를支配한다!

度數가맛지안는 眼鏡을 쓴다거나、或은長時間過度하게視力을쓸때、頭痛과、倦怠를느끼는것은 누구나늘 經驗하는바이다。이것은 卽눈이直接腦의 作用에 關係하고 腦를 支配하는것임을分明히證明하는바이다。

이러한 狀態로 되는것을 醫學上으로는 眼精疲勞라하야 近代人特히細文字를읽고쓰고하는 學生과 事務家、或은 長時間裁縫에從事하거나、職業的으로 微細한 物體를보는 사람들에게 흔히잇는 近代的疾患의 하나이다。

眼精疲勞가된 境遇에는、처음에눈이疲勞하기쉽고、物體가 朦朧하게보이고 頭痛이나고 頭重이되는程度이지마는、이것이 더지나면 睡眠이不好하고 判斷力과記憶力의 減退를 보게된다。이러한 症狀을 自覺한 境遇에는 決코 放任하지말고、그原因이될일을 避하는 同時에、로ㅡ도ㅡ안약과 가튼 健眼에効果잇는、適當한 眼藥을每日數回點眼하야 눈에 休養을주고 눈을 愛護하는것이 緊要하다。



結膜炎

結膜炎이라는것은 結膜、卽眼瞼의 속과 眼球를덥고잇는 粘膜에일어나는 炎症으로世俗에 돌린눈、눈곱끼는눈、부은눈、붉은눈이라하는 것이 이것이다。原因은K·W氏菌等의 黴菌、塵埃、强烈한 光線等이며、그症狀은 輕할적에는 結膜의 充血眼脂의 分泌、眼瞼의 腫脹等이지마는 그것이 重해지면、充血과 腫脹이甚하고 或[illegible]시며 또 밝은光線에 對하여서는 눈이부서서 눈뜰수가 업게된다。이結膜炎의 療法으로는 每朝洗面할때에 淸水로 눈을씻어 眼脂等의不潔한것을씻처낸뒤에 로ㅡ도안약을 一日、二三回點眼하는것이 有効하다。로ㅡ도안약은 그 殺菌作用으로 病原菌을 殺滅하고、消炎作用으로 炎症을 消散하며、收斂作用 鎭痛作用으로 充血과 腫脹을 낫게하고 痛症을 그치게하는 機能이 綜合的으로有効한 作用을 하는것이다。

角膜炎

角膜炎은 世俗에 삼눈、졸람눈、홍람눈、잘물흐른눈이라하는것들인데、眼球에 검은자위에 생기는眼疾이다。原因은 草葉이나 나무끗에 찔린境遇、或은 結膜이 進行續發하는 境遇가만코 검은자위가 흐려지고 흰삼이 서서 눈이 침침하고、或은 눈물이나서 눈잣이 진물르는수가잇다。療法은 大體 結膜炎의 項에서 말한것과 가티하면 고만이나、로ㅡ도안약의 優秀한 消炎作用은 角膜의 炎症에 對하야 極히 有効하게 作用하야 그 收斂作用으로부터 눈흐린것을 업세고 짐물른것을 고치며、炎症이 減退됨을따라 눈물은 적어지고 鎭痛作用으로 疼痛이抑壓되는것이다。

適應症

結膜炎、角膜炎、도라홈
學校眼炎、眼瞼緣炎、疲勞眼
結膜充血、角膜翳、麥粒腫等

俗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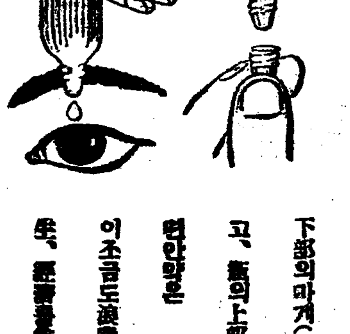
上氣된눈、돌린눈、진무른눈、눈곱끼는눈、붉은눈、흐린눈、삼눈、저린눈、어둔눈、雪盲、찔린눈、부은눈、뻑뻑한눈

어린애의眼疾에對하야

二、三歲以上 七、八歲때까지의 幼兒들에게서 흔히보는것이어니와 아침에 일어날적에 눈곱으로 눈이 딱들어붓터서 甚한것은 눈을 뜨지못하는수도잇고또갑작이 눈의흰자위가 淡紅色으로 充血하는 境遇도잇다 이것은 흔히는 急性結膜炎이 되는것이다。애기네들의 點眼에는 小兒專用으로 特히 處方調製한『小兒用로ㅡ도안약』이 잇서 쓰리지안코아푸지안코 安心하고 使用할수 잇다。

新案特許

로ㅡ도式 自働點眼容器



使用法說明

下部의마개(나사뚜껑)를빼고、[illegible]의上部고무를눌르면 눈곱[illegible] 한방울은 一滴식나온다、[illegible] 이조금도漏出되지안코便利[illegible] 또、[illegible] [illegible]이다。

生産合理化 藥價低廉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部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藥店에서販賣함

本舖 山田安民藥房

營業所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工場 大阪市東成區猪飼野町

家庭

봄에는 쑥을뜯더 애탕천엽도 한운치
노는날은 온 가족이 들로나가
家庭을— 잔디밧테버려봅시요

봄에서 녀름한철은 천렵이 재미잇습니다 친한친구끼리 어깨를겻고 냇가나 산달로 돌아다니며 하로간 소풍을하는것도 조치요만 집안식구끼리 손에손을잡고 시원한 교외에 나아가서 하로나마 정의를 북돗는것이 더 조흡니다。그런데 여러가지천렵중에도 이른봄 애탕천렵은 더욱이 운치가 잇습니다。잔듸의 속닙이 도다 바야흐로 푸른빗을 띄려 하고 종달이 해빗을 바라 노피 우지지거든 노그메에 애탕국에 하로해가 지는줄을 모르게 됩니다。서울도 문밧그로 나가면 애탕천렵을 할만한곳이얼마든지 잇습니다。일요일가튼때 한번 나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천렵을 하려 나가자면 모든제구를 차려어가지고 나가기 극난합니다만은 그것도 간단히 할것가트면 어려울것도 업습니다。위선쌀이나 먹을만침 담고 마른반찬이나 멧가지 준비한뒤에는 장 한병 기름 조금 꾸미얼마 닭알멧개에 깨소금 고추 파 마눌 밀가루 각각 쌀것싸고 그대로 담을것 담아 가지고 나아갑니다。그러자면 쌀담을조그만자루 하나 마른반찬을담을 변또 하나 장병 하나 양념과 기름병 담을중남비 하나에 다시 큰남비 둘쯤 더가지고 가지안습니까? 그랫다가 그중남비로는 룩가튼것을 뜨고 큰남비로는국과밥을 하면그뿐이 아닙니까? 그것을 모도싸야 그저한 사람이 들고갈만합니다。갈려서 둘로싸서 논하들고또 번갈아든다면 더구나 아모것도 아닙니다。

×

애탕천렵에는 주장이 애탕갈이라 국을잘끄리어야 합니다。물론 그쪽의 료리야 쉬운것이지요만은 참고삼아 엿줍겟습니다。몬저 쑥을 뜨더 곱게 다듬든뒤 살근살근 문질러서 물에 씻습니다。그러케 씻어 노흐면 숨이좀 죽고 빛이 썩 파래 집니다。그런뒤 밀까루를 무치고 또 닭알을 풀어서 씨운뒤 뚝뚝 떼서 끄리는 국에 넣습니다。그러면 뭉실뭉실하니 쑥이 밀가루와 닭알에 엉킨채 떠오릅니다。국은 보통 맑은장국처럼 꾸미너코 끄립니다。혹은 북어껍질도 잘씻어서는 그역시 닭알에 씨워서 너키를 합니다。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내고 보면 쑥이모다 가라안저 버리어서 아조 보기 숭업습니다。될수잇스면 방울 다 지어가지고 먹게 될때쯤 가서 국을 끄리어 먹게해야만 합니다。

×

애탕천렵에는 가재잡이가 딸아 다니나 서울근처는 가재를·잡을만한곳도 업고 나뿐병균을 전염시킬 우려도 잇서서 오히려 부질업습니다 가재잡이 보다는 풋나물을 뜨더 무쳐먹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운치를 돕지 안할까 합니다。낭이、소로쟁이는 물론 그외에도 벌써먹게 되는 나물이 업지 안습니다。고치장이나 좀 가지고 갓다가 자긔손으로 뜨든 나물을 썩 무치어 반찬삼는다면 그맛이 더한층 홍홍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봄은일년중 "임""신""잘되는철"
이이치를 아신다면야 애기도바랠수잇지요

하늘이 맑고 강물이 푸르고 나무잎의 향긔가 우리의감각을 새롭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일 년을처노코 봄철처럼 임신하기 쉬운시절은 업다고합니다 그원인이 한두가지 아니나 첫재로 내분비(內分泌)가 왕성해지는리유도 여기의 하나입니다 겨울엔 무엇이고 죄다 간조해집니다 그러다가 봄이오면말 낫는초목에 물이오르고 잎사귀가피여나고 꽃이피는것과가티사람도 또한 강한활력을가지게되며 전신의혈액이 잘순환하는까닭에 내분비선(內分泌腺)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따라서 특히 부인네들은 란소(卵巢)의 작용이 왕성하게됩니다

그것은 떼깃게 말슴드릴필요 업겟지오 엇젯든 봄이란 시절은 동물과도 달러서 언제든지 임신하게되여잇는사람까지도 임신을 만히하게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봄이 그러타면 가을철도 기후로봐서 그리납불것 갓지는 안으나 엇젯지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다고할것갓흐면 가을은임신하는일이 극히 흔치못한데요 그리유는 뜨거운 여름해볏에쪼이든 우리들의몸이 극히쇠약해지는까닭에 임신은고사하고 몸을 회복식히느라고 몸과 마음을 긴장식히고 잇는사이에 치운겨울이 와버림으로 그만임신은못하고 맙니다 종종볼것가트면 결혼한후에 별로병도 업는데애기가업다고 걱정하는이가 적지안흔데 이러한 부인네들은 시절을 잘알어서 그때그때에임신을하려고 노력하지 안흐면 안될것입니다

그방면으로서는 란소호르몬을주사도 마자야겟고 완전한 영양과 신선한 일광과 공긔를필요하게 흡취해야 할것입니다 무겁고 험험한 겨울옷을 버서버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봄옷을 가려입으시고 산으로 들로 산보하시며 맑은공긔와 따뜻한태양을 쏘이십시오

그리고 미나리달래 냉이 시금치 무엇이고 이봄철에 나는 나물들을 만히잡수시십시오

우리네 가쓰는 비단옷감 몃가지나되는가 (二)
李相烈氏談

그 다음에 또 『문조세트』는잇습니다 본견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문의가 인조사로 되것이므로 교직이라고 할수 잇습니다。

그리고『지리멘』이란 비단을 말할것가트면 조선에서 낫것이아니요 일본내지에서도 요근래생긴것인데 원료가 조흔것이기때문에 실속이잇습니다

압흐로는『지리멘』의 전성시대가도라올것갓습니다 그리고 견직게에서도 여기에대해서 큰힘을 드릴것입니다 그런데 『지리멘』의 본고장은 경도(京都)근처 난후(丹後)이며 이지방에서 이『지리멘』을 전문적으로제직하고

그다음육합부다에를 말슴하면 여러분도 잘아시는바와가치 오륙년전이 한창이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조견에 눌려서 전가티 만히사용하지 안는것갓습니다 위석합부다에의 원고장이라고 할수잇는 복정(福井)이란 곳을가보면 『하부다에』짜는공장이말케 인조견제 직공이 되다십히 됏습니다 그러나 인조견이인끼를 일키시작한 요즘이라 본견들이 득세함을따라 진저히『하부다에』도 다시만히 투쇄될것갓습니다。

『하부다에』도 전과가튼 종류만내노치말고 『하부다에』를 근본으로하고 여러가지로 가공을한 종류가 나타난다면 류행될길이 만히 열릴것입니다。그런데 『하부다에』는 조선안에서도 얼마간 제직되어 나옵니다

그다음 『벨베트비로-도』를말슴하자면 실직에 퍽 힘드는만콤 실속이 잇기는 합니다만우리네의 옷감으로는 아직 적당할테가 업는것 갓습니다 『벨베트비로-도』를 짜는 기게는보통 비단옷감을 짜는 기게와 다르며 보통비로-도는 무명실이 원료로되어잇지만 이 『벨베트비로-도』는 순전한 비단실로만짠것인데 가짜가되면 인조실로짠것도 잇습니다。

『비로-도』를 짤때는 신 대개 구리철사를 지버너어가며 짯습니다 그철사사의굵기는 보통 십오미리로부터 사십미리가량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벨베트비로-도』는 한번에한장식 제직하는것이 아니고 한번에 두겹두폭으로 제직하기때문에 제직후에는 넘장식 되어잇습니다

그다음~『조세트비로-도』는반드시 문의가잇습니다『문조세트』와가튼조직이되어잇스며 제직할때도두겹으로 제직하며 문의의 모양도 대개 사게가맛는 문의로 고안하고잇습니다 그래야만 제직후에 두장이 다가튼모양이 될것아닙니까

그런데이『조세드비로-도』는먼저 말슴한『벨베트비로-도』마톰도실용이못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빨래를 마음대로 할수업기때문입니다

그다음-『벨베르그』라는것은 보통인조견보다 좀나은것인데 인조견은인조견이나 원료가 좀나은것으로 제직해서 본견처럼보드러운점이 특색이라할수잇습니다 이『벨베르구』나마 조선서는 아직제직되는곳이업서모다 외지에서 드러옵니다

그다음으로 한말슴할것은 인조견이 기세가꺽기고 본견이득세하게되어간다하지만 인조견은인조견대로의 발달이 작구되어갑니다 최근에독일과오스트리아에서 재로생긴 인조견사를 본다면 재래의인조견과는달라 본견과 여간방사한것이 아닙니다전문가아닌사람이 얼른 보아서는인조견인지 본견인지 몰라볼만콤 본견과흡사합니다

일본내지에서는 벌서 일실용수입하기시작해서 넥타이 와이샤쓰속옷을 짜기시작해스니까 우리네옷감으로 제직될날도 불원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새로운인조견과 본견의 감별법을 일일히말슴드릴수업습니다만 단지한가지 이인조견은 물이부트면것잡을수업시 다는것이니까 물을가까히 하지마시사고 하는말슴만드리고말겟습니다

(사진은 금년가을에 나올몰-는란 옷감인데 저고리、두루매기에 적당합니다)

우리차지

어머니란 말을
영국사람과 미국사람은
『머더-』
불란서 말로는
『메-르』
로서아 말로는
『마치』
독일 말로는
『무터-』
중국 말로는
『마마』
아라비아 말로
『어미』
만주 말로는
『어머』
(글쓴사람 말박사)

가정의학

군침이작고흘러

問 오십사세남자인데 십여세때에회人배를알엇습니다 그후로 부터는 수년만큼식 재발하야군침이 끈일사히가업시 나옵니다 그리하야 약을여러날 복용하야건만 나오지는안습니다 한약도 복용하얏스나 아모효력이 업습니다 엇지하면 조켓습니까 (軍春讀者)

答 다시한번 대변을검사해보십시요 회알이잇는지 업는지를 잇다하면 그간사용하든 약과는 다른 면회약을 복용케하십시요 만일회가업스면 다른병일것입니다 신경성으로도 되는일도 잇고 만성위염으로 그러되는일도 잇서 일정치 안습니다 좌우간 적긔처방약을 복용하여보시고다시 무러보아주시요

一、鹽酸세리올 Q、三
비르미라-ㅊ 一、〇
乳糖 適量
右爲分五包 一日三回 食後服
用要二週間連用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農村婦女指導講習

조선녀자 기독교청년회 련합회주최로 해마다 봄의 농한기를 리용하야 열리는 농촌부녀지도자 수양회는 올에드려서 제삼회 오는 이십일부터 사흘십칠일까지 약사주일간 시외 신촌(新村)농민수양소에서 열리게되엇다합니다 입소자격은 십팔세이상 사십세미만의 부인으로조선어를 보고 쓸수잇는분에 한한다하며、강습과정은 수양강화、가정강화、농촌상식강화、요리、재봉、세탁、염색、육아법、가정위생、가정부기、동요、동화、유희、가정부업등이라합니다 유지자는 식비오원을 첨부하야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三三 朝鮮女子基督敎靑年會聯合會 兪珏卿氏에게로 신청해야 한다합니다。

地下村 (六)
姜敬愛 作 熊超 畵

한참만에 칠성이는 방으로 들어오니 방안은 닥가마속 갓핫다。

그는 안잣다 섯다 안탑을 하다가 머리를 기웃하야보니 애기는 손을깔고 봉당에 업드어 잠들엇고、겨원논 자리엔 쉬파리가 날게 업는듯이 벌벌 기고잇스며、애기 머리와 빼금이 벌린 입에는 잔파리 왕파리가 아굴바글 돌싸다。과자! 그는 놀라둘러보앗다。부스레기도 볼수 업섯다。애기가 다먹을수 업고 필시 칠운이가 들어와왓는것이라 생각될때 좀남기고 줄것을 하는후회가 일며 칠운이를 보면 실컨 따리고 십헛다。그는 달아 나오면서 발길로 애기를차고 나와섯다。손을 거북스레깔고 모루누은꼴이 눈에 꺼리고 또 여웬 팔다리가 보기 실어서 이려하고 나온것이다。

애기 우름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칠운이를 차잣다。저편 버드나무 아래에 애들이 몰며떠든다。옳지 저게 잇구나 하고 씨씨그리며 그리로발길을 떼어 노앗다 몰래몰래 오누라 햇건만 칠운이는 벌서 형을보구서 달아난다。애들은 수수대를 시시하고 씹고셔서 칠성이를 힐끗힐끔 보다는 희희 우섯다 어떤놈은 칠성의 거름 흉내를 내이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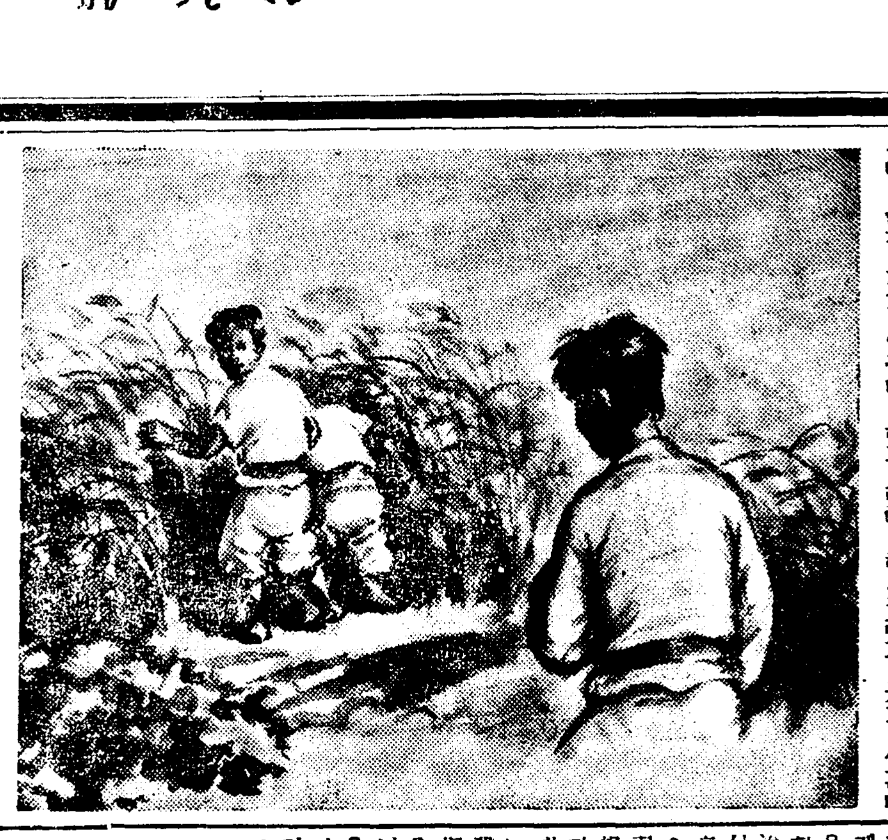
칠운이는 조밧트로 들어갓는지 뵈이지도 안는다。그는 잡풀에 얽히어 너머지니 뒤로 따르든 애들은 허하고 웃고떠든다。칠성이는 겨우 일어나서 애들을 노려보앗다。이놈들도 달려들지나 안호려나하는 불안이 약간 일어 이러케 딱버티어보인것이다。애들은 무서웟든지 실금실금 다라난다。애들 갓치안코 무슨원숭이 무리가 먹을것을 구하려 눈이 뒤집혀서 다니는것 가탓다。이동니 애들은 모두가 미운애들만이라고부지중에 생각되어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걸엇다。이마가 따끔고발가락이 따끈데 또 애들이벗겨버린 수수대껍질이 발끗테 따금거린다。애들은 내를 바라고 달아난다。그무리에 칠운이도 석기엇슬것이라고 그는·버드나무 아래로왓다。

여기는 수수대껍질이 더만코 또 소름끗다 매는타인지 소동이 늘어분햇다。버드나무에 기대서서 그는 바라보앗다。저쪽로 그의 눈이 큰년네 집에멈치고또큰년이를 맛나볼 맘으로 가득햇다。지금혼자 잇슬텐데가볼까 그러다 누가 잇스면…무엇이 따금하기에 보니 왕게미 몃마리가 다리로 올라온다 그는 톡톡털고 다시 보앗다。

멀리 큰년네 바자엔 빨래가 히게널렷는데밧금 날르려는 새와가티 되록되록하야쉬하면 푸르릉 날을듯햇다 잇기는 누가잇서 김매러 다갓슬터인데…신발소리에 그는 돌아보앗다。개똥어머니가 어떤 녀인을 무겁게 업고 숨이 차서 온다。전가트면『요새 성양 만이 벌엇겟구먼 한갑선사하게나』하고 롱담을 건니울터인데 오늘은 울상을하고 잠잠히 지나친다。이마에비지땀이 흐르고 다리가 비틀비틀 꽤이고 숨이 하늘에 닷고 그는 머리를 들어보니 등에업힌 녀인인즉 죽은 시체가 탓다。훗터진 머리주제며 입에 끌른 더품들 피투성이된 옷! 눈을 크게뜨고 머리카락에 휩싸인 녀인의 얼굴을 똑바로보니 큰년의 어머니엇다。그는 놀랏다。해서뭐라고 뭇고 십흔데 벌서 개똥어머니는 버드나무를 지나 펴이나갓다。웬일일가 어디 너머젓나 누구와 쌈을햇나 하고 두루 생각하다가 못견디어 일어나 따랏다。맘대로하면 얼른가서 개똥어머니에게 어쩌된 곡절을 뭇겟는데 다리가 말을 듯지안코 점점더 비찰그리기만하고 압흐로가지지는 안는다。그는 화를 더럭내고몸짓만 하다가 딱꺽구려젓다。한참이나 버둥그리다가 일어나서 천천히 걸엇다。

큰년네 글녹에는 연기가 호른다。올구나 큰년의 어머니가 어찌해서 그모양이되엇슬까 또다시 이러한 궁금증이 일어난다。그가 큰년네 마당까지오니 큰년네집으로 들어가고 십허 발길이 작구만들려진다。그런것을 참고 무슨 소리나 들을까하야 한참이나 와다갓다하다가 집으로왓다。

봉당에 들어서니 파리가 와그 끌른데그속에서애기가똥을 누고잇다。깽깽힘을쓰니똥은 안나오고 밋이 손길가티 빠지고 거기서 빨간 피방울이 뚝뚝떨어진다。애기는 기를쓰노라 두눈을 똥그라케 비켜뜨니 얼굴의 힘줄이란 칼날가티 일어난다。그조그만 이마에 땀이비오듯하고 그는 못볼것이나 본것처럼 머리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와다。맘대로하면 애기를 칵 밟아 죽여버리든지 어데멀리로 들어다 버리든지 햇스면 오히러시원할것 갓다。



자랑할만한 子宮病藥
女子醫學博士가 體驗하고推奬한
內服藥 命之母
外用藥 오기나球

●대하증의原因과 治療法●

대하증이라는것은 月經以外에 局部에서 말근물이흘으기도하고 或은 고름가튼것이 흘으기도하는것이데、그原因은 男性에게淋疾이나 梅毒가튼 性病이感染되거나 月經時의 不注意와 房事過度나 卵巢炎、膣炎等의 모든 子宮病으로부터 생기는것입니다 대하증의初期에는 고름이나、개란흰자가튼물이흘으다가 점점심해지면 피고름이나오게됩니다 그러므로 대하증이잇으면 局部에서惡臭가몹시나며 子宮內部의 모든機關의傷害로말미아마 後日에惡結果가 반다시생겨서治療할내야할수업시되여 一生을버리게됩니다。이와가티무서운대하증을보통부인들은 女子에게는당연히누구에게던지 잇는것이니하고 治療를 게을이하는부인도잇으나 실상은 이러케放任해두는동안에 病菌은더욱繁殖되고 患部는刻刻으로破傷됨을따라 身體는점점衰弱해지고 頭痛眩氣나며 手足腰部冷하며 下腹引痛等의모든症勢가倂發하게됩니다 그뿐안이라、대하증가운대는 酸性의毒素가잇는關係로 男子에게바든精虫을毒殺식히므로不姙症이되거나 或姙娠을한다하드래도 流産이나早産을하고마는悲慘한運命에빠지게됩니다 이와가튼病이 잡북되부인은 適當한 治療方法을찾지못하야 苦痛으는 한숨과눈물로 번민을하며지금까지 平和하던家庭도子女를出産치못하는탓으로 차라나이다 자不和하거되여 甚하면 시부모와남편에게 소박까지 밧는수가 허다하오니 하로바삐治療를 게을이맙것입니다

最新藥이 發達된 現文明時代에 子宮病根治藥이들 업슬理가잇것습니까、여과서、대하증을 根本的으로根治하시면 얼굴에화색이 돌고 주름살이펴지고、아랫다위지며、손발이더워지고、顯著히淨血作用을하야 膣內의黴菌이나毒素를全部滅殺식히고、病菌에진細胞를 回復식혀주는結果、血液이淨潔하게되는同時에 不順하던月經이順調롭게되며대하증이根治됩니다。또한、外用藥으로 膣部에直接使用하는 오기나球도잇사오니 內服藥命之母를服用하시면서外用藥오기나球를倂用하시면 더욱速治됩니다。오기나球는 주무시기前에한개식 膣部에 挿入하야두면하로밤동안에 그藥效를 顯著히알수잇습니다

의『命之母』와오기나球로말하면 三十餘年의 기나긴歷史를가지고 東洋婦人患者는 勿論이오近日에는西洋婦人患者들께서도 服用하시고 子宮病을全治하고 愛兒를 出産하신實例가 허다항은婦人의 好評과 本舗에到着한禮狀과 兒의寫眞이證明하오니 여러분家庭에子宮病으로苦痛하는患者가잇스면하로바삐『命之母』와『오기나球』의良效에 全快하시기바라나이다더욱이『命之母』와『오기나球』는東洋婦人의體質에 가장適合하게理想的으로 製造販賣하는藥이므로누구던지一次試用하시기바랍니다

대하증이三週分에 全快되여姙娠햇소

前略『命之母』를付送해주서서 처음으로 服用해본즉 氣分이조아지며 겨울에도추위도몰으고 健康히지냇고昨年여름에는 姙娠까지하야 姙娠中에도別故업시 健康히지내다가出産햇읍니다 産後에도『命之母』의德澤으로以前에는不順하던月經이 順調롭게되며 대하증도根治되고 지금은結婚當時보다도 조금살찐모양이고 어린애도튼튼히자랍니다 後略 (上記寫眞은 小川아끼子)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도販賣하지만特히本舗로 註文하고자하실분은 藥代金을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 또는 小爲替로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 便利하오나 萬若藥價를 指定못하실때는 病勢까자세히 記入해주시면 代金引換으로 適當한藥을送付합니다

今日 이新聞을보시고 帶封하야 五厘切手를붓처서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ノ 命之母本舗로보내시는분、또는 藥書로申込하는분에게 三大醫學博士가指示하야朝鮮말로 알기쉽게쓴 婦人病自宅治療書와 命之母의說明書를누구에게든지 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輸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産前産後의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壹圓
一三日分 貳圓
二〇日分 參圓
三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
命之母本舗·合資會社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鎭咳祛痰 フロチン

適應症 肺結核、氣管支카다루及其他呼吸器疾患으로서咳嗽喀痰多量의諸症及百日咳……(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胃腸에 タカヂアスターゼ
타가지아스타-제

一般지아스타-제와는全然그製法品質을달이한것

某醫家가評하기를。타가지아스타-제를。諸般消化不良에쓰면大槪効果를보지못한것이업다。그中에도。胃神經症。慢性胃가다루。肺結核等及其他慢性病으로食慾不振。食後胃部停滯感等을가진분은이것으로食慾이增進되고。榮養이良好하여젓다는것이不少하다고。云云

타가지아스타-제는三十餘年前高峰博士가 發見한것으로서처음에는單只澱粉消化素로써알여젓섯스나。各國學者의硏究에依하야 約二十種의多數한 消化酵素를가지고。消化劑中獨特한性能을가진것을證明하고잇다。

(說明書進呈)

三共의藥品 의定價와簡單한說明과를揭載한册子『三共의藥品』잇스니所用되는분은朝鮮日報名記入後申込하면贈呈합니다

粉末、錠劑各種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戲曲 春香傳 (六)

【美舞許上演】 柳致眞 脚色

御史 너는 이편지를 가지고 또 운봉으로 가거라。(편지를 또 하장 써준다)

房子 운봉으로요!

御史 거기가면 도암영이 잇느니라。이놈아 빨리 내다려랑 행여 루설할라 이놈!(房子「예」하고 뛰어나간다)

御史 (혼자서)남원골도…허지만 춘향이를 내일 죽인다니 내일아츰까지는 일줄들이 남원으로 드러다어야할텐데、그럴수가 잇슬는지。

第三幕 第二場

【登場人物】

春香
月梅
香丹
獄司丁
許봉사
門間使令
其他獄司丁數人

【場面】

獄 左便에 獄、右便에 獄司丁의房。後강은 하늘에 다은듯한 노픈獄담。

春香은 칼을쓰고 獄中에 가처잇다。獄門압헤는 獄司丁甲 짜수를 보고잇고、獄司丁房에서는 다른司丁들이 투전을하고잇다。그中 한사람——司丁戊——는 누어서 나직하게 육자백이를 부른다。

獄司丁가튼 발길부터 새벽녁까지。獄卒들에 操練곳은 正히滿期하얏다。

春香은 홀로 이런생각 저런생각 하면서——

春香 ……밤자가 그편지를 가지고 어듸까지 갓는지。주야배도(晝夜倍道)단여오다 하엿스니 내일아츰이면 아마 서울안에는 들어서겟지……

門間使令 사정이!(門間使令 춘춘향 나온다)

獄司丁甲 웨야。

門間使令 (투전하면 獄司丁들 무슨일인가 하고 나와본다。노래소리도 끄친다)

獄司丁乙 웬일인가?

門間使令 내일은 본관생신이라 생신잔치끄테 춘향이를 죽이려고 형장만히 깍가 올리라는분부시니 그리알고 조처하게。

獄司丁乙 그분부 시원하다 기생년이란 오가는 나루ㅅ배라 그저아모나 선개만 내면 태어건는는 법이넌가 그러는것을 괘니 그년이 래ㅅ가락을 빼다가——에키 미련스레운변 가든니!

獄司丁丙 그말섬 스레운변이업서지면 우리 사정이들이 좀 편케고나。

獄司丁丁 하지만은 그변이 죽고나면 날마다 술가홈 드러오는것이 부적 줄어들지안켓는가?

獄司丁戊 에라 이사람을 그만두어라 그변이야 죽더람대우 리는까가 올리라는 형장만 짜가올리면 그만 아닌가?그리고 밥이나 어더먹엇스면 되엇지 뭐。

獄司丁乙 자 어보게들 우리는 (房으로 드러간다)

獄司丁甲 하면 투전이나하세 춘향이그년도 죽기를 맹세한변이니 죽는다고 무서워 하겟나 형장만히까거라。(獄司丁乙 房으로 드러가서 투전판에안는다)

獄司丁甲 (獄窓을드려다보고)춘향아 너는 낼이새면 죽을터이니 죽기전에 너의집에 부탁할말 잇거던좀 미리 말하여라。

春香 부탁할말 업소 이리케죽는변이 할말슴한들 무슨소용이잇것소

獄司丁甲 에이 독하다。

門間使令 참 매서운 변이로세。해포동아니나 가처잇스면서도 애초에 하면말을 꾀고대로하는고나。에이 지독한년!

(門間使令 退場。다른 獄司丁들도 『에이 지독하다』하는 소리)

春香 ……에그 지긋지긋한 세상! 날만 새면 꼿샹이 나는도다。(罷——)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돈저대로 房으로 드러안는다。

노래 소리도 다시 계속되기 시작한다。

春香 ……죽지말고 살어잇서 이원통한심회를 풀려야 할터인데……다하라……이 억울한 말을……누에게다 이 억울한말을 (하면서 壁에다가 머리를 부듸치고 운다)、

——獄司丁의房에서는——

獄司丁乙 에키 망할자식 이자식 그만 밤구락을 빼앗을라!

獄司丁丙 무어 이자식!

獄司丁乙 웨 매짝을 숨키느니

獄司丁丙 언제 내가 매짝을숨겻단 말이어!

(獄司丁乙丙 투쳐하다가 서로 멱살을잡고싸운다)

獄司丁戊 (밀리며)쉬!사내자식들이 고뭐 만량하게 한두푼을 가지고 이게무슨짓인가? 내일이 본관원님의 생신인데 그때문에 사스도께서는가가호호에 민간수렴(民間收斂)하노라고 야단이어。대장부 세상에나서 얼골을 불권랑이면 그런에 불컷이지 이것은 더러개·투전판을 벌려 노코 한두푼으로 차운다할인가? 쉬! (싸움이끄러진다)

獄司丁丁 참 이번 생긴잔치는 굉장할모양이더군。풍헌(風憲) 약정(約正) 면임(面任)들은 답인(踏印)수결(手訣)바다들고 대주소호 분등(分等)하야 돈과쌀을 거두는데 일등에 송아지 한머리하고 쌀닷섬 이등에 명주한필하고 보리두섬이라든가?

文藝時評 浪漫인가寫實인가?

—今月創作의吟味— ⑴

白鐵

浪漫인가? 寫實인가?——이 커달한 疑問符를 우리들의 創作界에 던저볼때에 意外로 거기에 이러나는 波紋은 豫期한데比하야 훨신 寂然한것이라는것을 豫想하지 못하는바는아니다 하나 外面으로는 切迫한 現實을 同伴한듯한 姿勢를 보혀주고잇는 이問題가 단순한

沈默을 不許하려고할때에 浪漫과 寫實! 이誘惑的인 두가지 멜로듸이에 誘導되여 나는 陰鬱한 게뮤우트의 世界를 通過하면서 他山의石을 發見하려고 하얏다 特히 他山의돌! 이라고 말하는것은 여기서 두가지가 제각기 正統을 要求하며잇는『베니스』의 大理石에 대하야 어느편이 是이며 어느편이 非인가를 決定하는것보다는 어느편이 是도아니고 어느편이 非도 아니라는 中和狀態를 理解하는데서 一定한 安心과 滿足을 어들이라는 自慰의心理를갓고잇는까닭이다

事實에잇서 外面的으로는 今日과 가티 浪漫과 寫實이 文壇에 對하야 제각기 關心과興味를 要求하며 그權利를다투는 時代는 드믈엇다고 생각된다! 浪漫인가? 寫實인가? 그것이 文壇저널리즘에 中心話題로되여잇는것은 유독히 外國文壇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文壇에도 正面의 토픽이되고잇다 지나간 新年某紙의 文藝面에서浪漫의精神을、高唱하는 論文과리앨리즘의道를 指摘하며잇는두가지論文이 同等의 權利와 資格을要求하면서 上段下段에

揭載된것을 볼때에 우리들 文壇에도 弄談들이 甚해젓다……고 나는 苦笑한일이잇다 弄談이란것이 나의 失言이라면 적어도 그 現象은오늘날의 文學의 混沌中에 彷徨하며 엇다는 正直한 表現이엇다 浪漫의 精神을 主張하는 그論文가운데서 아무리 浪漫과 寫實主義의 妥協案이 介在되엿다고하야도 浪漫과 寫實이 同一한 次元으로서 合致될 理는 萬無한 일이며 同一하지안는 두개를서로 符合시켜본다고 하여도 또한 그것이 現時의 混亂을 救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勿論 나는 浪漫과 寫實을 絶對의 限界의 저편에서 서로 對立하고잇는것으로서 그 語感을 把握하는者는 아니다……하나 그러타고 하야서 이 두가지의 語義를 曖昧한 發育가운데서 漠然히 處置해버리는 態度에는 首肯하지안는다 그와反對로 비록 相對的意味에서라도 浪漫과 寫實은 明確한 限界와 獨自性을 가진각기文學의 積極的方向을 代表한두가지이즘으로 理解하여야할것을안다!

最近 文壇의 一部에서 이른바로맨틱、리앨리즘」이라것이 提唱되고 잇는모양이나 내個人의判斷에依하면 그主張처럼 奇怪하고

變態的인것은 업서보인다 大概로맨틱、리앨리즘」이란 어떤것을 가리처 말하일까? 浪漫과 寫實의 結合問題ㅣ이것은 過年에 社會主義的리앨리즘의 提唱과함께 ……的로맨티시즘이 高唱되며 同時에그 結合이 問題된데서 出發된것임을理解한다고 하야도 지금생각하면 이浪漫과 寫實의 結合그것부터가 奇怪한 變態論이엇다! 나는생각한다 萬一 創作의 精神으로서 本來부터 作家、人間의腦髓에는 이두가지 精神이 具有된것이라면本年부터 우리들은 이두가지名詞의 使用을 廢止하여야하겟고 萬一 계속하야 그것을 使用한다면 文學은 嚴然히 그두가지를區別하야 使用할것이라고 생각되다 浪漫인가 그러치안흐면寫實인가 文學者는 이두가지中의하나만을 取할權利박게갓고잇지못하다 浪漫이면서 同時에서 寫實的이려는 中間低迷의 善良한中庸主義의文學者를 나는 極히輕蔑할따름이다! 文學은 決코中庸의道를 지혀가는 謙遜한道學者는아니다! 그와

反對로 極端에서 極端으로 거러가는『絶對의 探求』(?)者! 그兩端의 尖路以外에는 文學의나갈길은 업는것이다! 또한 過去의 文學史上에서 모든實例를 參酌해보아도 『로맨틱리앨리즘』 가튼 中庸主義의 名稱을 나는 不幸히 記憶하지못하다 文學의 發展에잇서서 過去의 文學者들은 人間의 두가지 精神을 指摘하야 古典主義的과 浪漫主義的 素朴的과感傷的 構成的과 破壞的 어폴로的과디이어니서스的『클래식』과 『배록크』等으로 區別한것은 周知하는 바이나 그것은 文學은 언제나 그두가지 精神中의 하나를 選擇한것이라고본다! 勿論오늘날과갓티 一個의 轉換期에잇서는 浪漫과 寫實의 그어느편에依하야 文學의 方向이 結化되지못한 瞬間에는·이兩者가 結合하야 理想的 文學이즘을 構成할 可能性을 提示할는지모르나 그것은 단순히 한近視眼的判斷에서오는 謬斷이요 決코實際의問題로서 具體的으로 實現될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性質의問題에 對하야는 로맨틱리앨리즘이라든가 리앨리스틱로맨티시즘…等의 名稱이 任意로創造된다고하야도 나로서는 그提唱을 다만冷嘲하며 輕蔑할따름이다!

陽春路程記

(盆花)

봄은 한개의 傳說인가? 어듸로부터왓스며 어듸에와잇는지를 아는사람이업다。그러나 사람들은 봄이와잇다고 한다。

인제 겨으내 房안속에서 갓갓스로 짜어내인 人造春光은 양지바른 마루ㅅ전에서 슬프지안흔 辭世詩를 읇지아니하면 안되게되엿다。

그러나 鎭壓안에서 바띄오른 感觸이 하도 무겁거니 앙상한 가지를 어르만지는 손가락의 觸感은 봄날의 氣溫보다도 더 다사하다 (如水)

人間學第二序論

—人間의存在에對하야— ⑩

金基錫

우리들은 人間을存在로 規定했다。그런데 우리들은『파스칼』과함께 存在의속에몃개의秩序가 잇다고본다。存在속에는『生』을가지는存在가잇고 고러치안흔存在가잇다。이제우리들은 人間을 『生』을가지는存在로거믈規定한다 『生』을가지는存在는 存在에대하야어떤 聯關을가지는것인가。存在는 時間性에잇서서 自己를一般的으로 限定한다。存在는 이 一般限定속에서 다시자기를 個別的으로 限定하게된다。『生』을가지는存在는 存在에대하야 마조서는 秩序는아니다。『生』을가지는存在는 存在에한개의 새로운自己限定에지나지안는다。『生』을가지는 存在의概念은 存在의概念의한개의새로운個別的規定에지나지안는다。

人間은 그자신『生』을가진다。人間은 『生』을가지는일에잇서서 自己를 다른存在로부터 구별한다。存在는그대로存在에그치지안코 자기를무어인存在로限定한다 무어인存在는 存在의한

個別的限定이니 個別的限定에잇서서만存在는그자신의一般的 個別的限定을 보인다『生』은어떤存在가 거기에잇서서 자기를무어인存在로限定하게되는 存在의한새로운 性格에지나지안는다。『生』을 性格으로하는存在는 『生』을性格으로하지안는存在에 대하야 자기를구별한다。『生』을性格으로하지안는存在는 『生』의否定인 死를性格으로하고 주어지지안는다。

『生』의否定인死는 오히려한개의 『生』에지나지안는다。진실한『生』은『生』과死를 그속에가지는『生』이기때문이다。『生』을가지지안는存在는『生』을가지지안는것과함께

死를가지지안는다。『生』을 모르고死를모르는存在인것이다。『生』을모르고死를모르면서도 그것이存在인한에서 그것은依然히『움직이는』存在인것이다 우리들은『生』을가지는存在와마조서면서 그것을『生』을가지는存在로만드는한개의秩序가存在속에 잇슴을본다。『生』의原理는『生』을가지는存在의原理이요 그것과마조서는秩序의原理는아니다。『生』을가지는存在와마조서는秩序속에는 運動의原理마하잇고 生長의原理創造의 原理는업다 그러나 生長의世界 創造의世界가 잇기위하야는 그것과 마조서는 世界가어서서는 안된다。여기서 우리들은 存在를단순히 運動의槪念에잇서서뿐 規定하려는 見解와함께 存在를단순히『生』의 槪念에잇서서뿐 說明하려는 見解에反對한다。하나는 存在의 一般的限定을알고 그個別的 限定을모르는 見解이요 하나는 存在의個別的限定을 알고 그一般的限定을 모르는 見解이기때문이다。

『生』의 秩序는 存在의 世界속에서 한개의 領域을 차지한다。그러나 그것이 그자신의

領域을 차지하기위하야는 자기와 마조서는 秩序가 다른한개의 領域을 차지하는것을 허락해야한다。『生』을가지는 存在는 자기와 마조서는 秩序를 通하야 자기를 한개의 個別的인 存在로 限定한다。우리들은 存在가 그대로 存在에 그치는것이 아니고 그것이『生』을 가지는存在가든것에 잇서서 자기를 個別的으로 限定함을보앗다。의『生』을 자지는 存在란 무어일가。『生』을 가지는 存在는 死를 가지는 存在이다『生』을 經驗하는 存在만이 死에遭遇한다。

讀者文室

▲三國史記(金富軾著)孤山遺稿 青丘永言、芝峰類說、右記書籍을 賣渡하실분은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면 價格高下는 勿論하고買受하겟습니다 其他古書籍무어든지 通知하여주시기바랍니다 全北淳昌郡金果面古禮里 楊相夏

▲讀書家諸先生任이시여 저는 廿二歲의 靑年이온대 限업시그리운글을 環境의 不可能으로購讀할수도업고 또借讀하려야 빌일곳도바이업사외다 幸여러분가운데서 읽그고남은 책을借送하여주신다면 얼마나 感謝하오며 往復郵料自擔하려하오니 어릿가精케보고는 꼭返送하겟사오니 어둠에 헤매이는 人形의게 一線의希望과 歡喜를 주시리라밋고 미리부터 감버하나이다 慶尙北道英陽邑西部洞金時木

▲讀者諸氏께로社交室을通하야 一問하오니 容恕하시고學校에서 中學教育을밧는한편 實務에的合한講義錄發行所와 住所를願聞하오니 下教하야주시면生光일까 하나이다 敏白

學生莊漫筆 ⑪

就職 (上)

萬海

『就職難 就職難』의 소리가 우리朝鮮사람에게 잇서서 언제든지 끈치는것이 아니지마는 各學校의 卒業期에 잇서서는 더욱 시끄러읍다 그것은 當者의입으로서뿐이 아니라 거의 사람사람의 입으로서 乃至 各言論機關으로서까지 그러하다 初等이나 中等學校의 卒業生에게 對하야는 아직 就職을 云謂할 時期가 아니어서 말이 업겟다와 專門學校나 大學校의 卒業生에 對하야는 一日 就職難이오 二日 就職難이오 三日 就職難이다 教育의 根本精神에 잇서서 배우는것이 純全히 就職을 爲하는것이나 아니냐하는것은 別問題로하고、사람이라는것은 첫재로 먹고사라야 하는것인대 經濟의破滅이라고 하니보다 차라리 經濟圈外에 放逐當했다고 할만한 朝鮮사람으로서 먹고 살거 爲하야 就職難을 부르지지 아니할수가 업는것이다

朝鮮의 學父兄으로서 子侄을 가리칠때에 初等學校로부터서 專門學校나 大學校를 卒業하도록 學資를 供給하라면 小數의 넉넉한 사람을 除하고는 大概가 全財産을 기우리게되고 甚하면 힘에겨운負債를 지게되다 그러치도 못하면 苦學生도 적지아니할것이다 그러면 全家産을 기우려서 子侄의 學資를 提供한 學父兄의 心理로는 學資를 爲하야 一時 家産을 蕩盡한다 할지라도 專門學校 或은 大學校를 卒業하면 반듯이 相當한職業을 어더서 기우러진 家業을 回復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잇스리라는 생각으로 一時의苦痛을 未來의希望에서 相殺하야가면서 卒業期日을 손곱아 기다리는터이며 그父兄과 家業의 事情이 그러니만치 卒業生 自身으로도 아모조록 速히 就職하야서 父兄도 慰勞하고 頹傾한 家業도 復興하고자 하는것이 當然한 道理일것이다 苦學生으로도 그러하다 그러면 至今 朝鮮사람으로서『就職』하는말을 누가 그르다하며 時代에 어그러진다 하야 就職難의 소리는 卒業生의 소리뿐이 아니라 一般社會의 소리며 一般社會의 소리뿐이 아니라 全朝鮮民族의 소리다

一關北紀行斷章一

⑤ 紀林

12、國境(가)

車에서 나리자마자
언새 表情가 코를 운다。

13、國境(나)

살진 華僑가 나무床에 기대서『라듸오』를 들어노코
國境의 緊張을 거정스레 엿듯는 거녀——。

14、國境(다)

捲煙를 퍼자
꿈의 距離가 갑작이 멀어지네。

15、밤중

잣이트린 密林에게서는
별을 쫏는 바람소리만
山脈에 빠르고나。

16、東海의아츰

눈보래가 먹자
지치인 山脈들은 바다ㅅ까에 모여들어 머리를박고
진한 간물을 드리켜다。

◇

政治的陰謀도 업다。
海流의 變節도 업다。

◇

오늘아츰 바다는 진정
간밤의 눈포래를 뉘우치나보다。

黃昏 【39】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들의문답 (五)

준식이가 먼저 제방에 들어가서 키보와길림이에게 무슨말을 하는동안、려순은 뜰에 서서 잇섯다。

『들어 오시지요』

하고 준식이가 두번재 권하는때에 려순은 제주인으로 돌아가는 길림이와 키보에게 미안하다는드시 조곰 허리를 굽히고 방으로 들어왓다。

『아까 말하든 그녀자가 바루 이아래ㅅ방에 잇서요』

하고 준식은 낫게말한다。

『네……、회사에 다닌지 오랩니까?』

『얼마 안됩니다。본래 학교엘 다니다가 지난 이십구년 겨울에 퇴학을 맛고、녀성운동에도 좀 삐처본일이 잇대요』

『네、그래요?』

『하지만 말뿐이지 아무짝에도 못쓰겟서요。……한데 그동생이……』

하다가 준식은

『참 아시겟군、회사의 다니는 그키적은 급사말이애요』

하고 려순을 처다본다。

『네、순홍이 말이지요? 그가 바루 동생이애요?전、그런 누이가 잇는줄은 통몰랏서요』

『그게 적어 뵈여도、지금 열일곱인가 여듧이라는데、아주똑똑하답니다』

『네、그러트군요。전 열대여섯밧게는 안되줄 알엇는데요』

『그러치만 보매와는다릅니다。여간 맹낭하지 안허요……작년에무슨말성이 생겨서 내가 대표인지 뭔지 되가지고 사무실출입을 멧번 한일이 잇서요。그래서 그때부터 그를 잘알게됏고 이집에도 갓금 놀라왓섯지요。제뉘도 그때에 알게됏서요』

『아주 교제가로 됏드군요。또렷도렷한게……』

『아무렴요。나는 비록 어렷지만 그때부터 벌서 재뉘 걱정을하고 잇겟지요。괜니 오굼이 떠서 비둥거리구 다니고만 잇스니 잘권해서 공장에나 들어가게 해달라구요。한데 제뉘도 내말은 어렵게 듯는것갓수해서 멧번 그대루 권해봣지요』

『호호、그래서 들어 간 거군요?』

『그러치요………그러나 원악 가두에서 롱편풍이 들어놔서 지금도 말성이예요。모양이나 내고」런앤지 나비인지 한거나 재잘그럿지、어듸 쓸모라구 잇서야죠』

그리자 려순은 까닭업시 무언지 가슴에 따끔 마치는것이 잇서서 감장 양사치마ㅅ자락을 발끗호로 밟으며 방바닥에 시선을 떨궛다。나를 경계하는말이 아닐까?……하는 반성과동시에、제가슴속의 한모퉁이가 발아래 밝혀지는것 갓햇다——

준식은 또 말을 잇는다——

『우리 직공중에 좌화도 다녀보고 그러그러한 축들과 얼여다니기도하든 치가 하나 잇서요。한데 오리가 제물로 간다구 이것들이 만나자마자 그만 의기투합(意氣投合)한는 모양이드군요』

려순은 여전히 말업시 듯고만 잇다。

『하지만 그게 오래것서요。요새는 또 공장주임과……천생잡자리라니까』

『공장주임이요?』

『네、헐보 말이에요。아직 못보섯서요?』

『웨요。잇다금 사장실로 들어오드군요。그저께도 왓다갓서요』

『그게 그래뵈여도 여간 눈후리가 아닙니다 다른일도 다른 일이지만 녀자라면 덥허노코 회를 처먹을라고 든답니다。정님이 일만해두 아무리헌들 거게 녀자가 먼저 결엇겟습니까。제가 다 그러케 맨는거지요』

『전 아직 인사도 안햇습니다만……』

려순은 무슨 변명이나 하드키 말하엿다。

『얼마전에는 정님을 공장사무실 사무원으로 쓴단말이 잇섯는데 요새는 그런말이 업드군요』

『공장주임이요?』

『그러치요 날짝 제손에 넷찬 말이지요』

『그리지안허도 피차 조아하다면서요?』

『하지만 사람의 말이란 가을하늘과 가튼거니까요。그런데다가 원악 녀자가 다갓적이 돼서 그전사내와도 여전히 줄처그리 거든요。그사내도 아주 쓰레미통에 던저버린게 아니니까요。이를테면 도랑에 들어선 송아지가 이언덕풀도 뜻고 저언덕풀도 뜻드시 좌우편치기지오』

하고 준식이가 씽긋 우섯다

순간 려순의 머리에는 그옛날의 농촌생각이 어제런듯 새로워젓다。호듥기를 불며 소맥이라 다니든 그귀엽이……。그때부터 가장 갓갑든 동무는 준식이가 아닌가?

潛在해잇는病根再發時

婦人病은 原因의治療가第一

—一時的局部的療法으로는不可—

苦惱의겨울은겨우지내고、눈압헤기어드는 和暢한봄빗을謳歌하고십흔때이면서도、겨울에서봄의換節期에는 婦人들에게는 SOS를發하는時期입니다。婦人病警戒의必要는참으로 일노부터입니다。

輕症이라해서 放心할수가업는婦人病

봄이차자오며는따뜻한氣候의影響으로 人體의모든機能도 俄然旺盛하게되야오는故로潛在性又는慢性의婦人諸疾患이急激한活動을일으키고、進行性에變化를일으키는것도 똑가치이時期입니다。

婦人들은、生理上、姙娠、解産等의義務를男子보다도 더질머지고잇는것임으로、身體의衛生에對하야는 特히深甚한注意를하여주기를願하는바입니다。

充分한攝生을직히고、婦人病의治療法을틀니지안케 곱하지안흐면안됩니다。

▼月經不順

月經過少又는過多、月經皆無或은月經不順을일으키는原因은姙娠이아인以上 꼭病的입니다。이것을그대로放任하여두어서、괴로운것을無理로참고잇스면 드듸여病勢를惡化식히여서 救할수업는不幸에빠집니다。月經時에는身心에多少의異常을일으키는바、神經이過敏하여지고、히스테리-氣味를呈示하며、肩胛痛、腰痛、下腹의引攣、膨氣等이나서末境에는그와가튼症狀이顯著히나라나서臥病하는사람까지도不少합니다。이러한분은、平素부터婦人病이잇는분이라든가、虛弱人又는貧血症人으로甚한苦痛을밧고잇습니다。特히月經時는感氣에걸니기쉽고、그가原因으로諸病을惹起식히기쉬움으로 冷症에안걸니도록、또는身體에抵抗力을길느도록注意하는同時에婦人病에의徵候가보이면 빨니治療하는것이必要합니다。

▼子宮病

子宮病은는子宮痛이라고하하면 但只一病으로、結婚하지안흐면안일어나는줄만밋고잇는분도잇스나 이것은 큰잘못으로、적어도子宮이라는器官이잇는以上、老若을不問하고이것에걸니게됩니다。子宮病의 種類는多數한병으로、그主要한것은 子宮內膜炎으로 下腹部가잡어단기고 內臟에疾痛이生起하며 白帶가내리고 腰部가압흐고 身體는漸漸衰弱하고 全身은그릿하고頭腦는鈍濁하여지고 顔色은變하고 不姙症이되야 一進一退의病勢에서드듸여 生命까지빼앗끼고마는무서운것입니다

月經障害 子宮病 上氣 頭痛眩氣、肩胛痛、下腹痛、冷症、히스테리-等은서줄노락얼거는것과가치매여든婦人病임으로 婦人病은 局部的療法이안이라 根本的으로 治療하지안흐주 未婚者는圓滿한 夫婦生活에間隔을내여서 一生의 不幸을招來합니다。이런婦人病의 原因을除去하고 滋潤한健康을獲得하는데는中將湯이가장信用잇습니다。中將湯은 多年研究의結果 完成된綜合的效果를 가지고잇는 原因療法藥임으로 이것을常用하면 婦人病의根本에作用하야서安全하게治療할수가잇는外에 絶對로副作用(胃腸을害하는것과가튼)이업슴으로有名합니다。

女性호르몬

이나흔 偉大한女性美를보시라

元來人間의身體는成長期를지내서若干月日을지내즉老衰現象이始作되는것이나 이것은年齡關係가안입니다。젊은분이라도 살이것칠기가쉽고 적은주름等이生起며서늙어보이는분도잇고 또中年期를經過하드라도 젊고젊은것을保持하고잇는분이잇습니다。이것은 호르몬分泌이 旺盛한가안한가에依하야 支配되고잇습니다。女性호르몬은卵巢로부터 産出되는것으로 이卵巢는婦人에게對하야極히必要한 中心器官입니다。婦人의尊嚴한肉體美한皮膚 옷칠가튼黑髮 모도女性美는卵巢에서分泌되는 女性호르몬의偉大한恩澤입니다。

젊엇슬時는호르몬의 分泌이旺盛하나 老齡이되죽 호르몬分泌器官의機能이 漸次로衰弱함으로더나가면女性의 金玉과가튼花容은사라지고、皮膚은 죽처지고、白髮이불어서 全體的으로 女性美를이바리게됩니다。

特히 一次婦人病에 걸이죽호르몬分泌作用이 衰退되야서 血色은 납부고 面의美容愈을 하드라는 얼골의 적으조흠이 나러나고맙니다。

中將湯은 卵巢其他의 分泌器官의 整調를 도웁고女性호르몬分泌을 甚히活潑케하야서 全身의細胞機能을 旺盛케하야、潛伏되야잇는 病根을除去하고、新鮮한血液을 養成하야언제나 젊고젊은 健康狀態를 保持케하야서血色이良好하고、女性호르몬은美를生식힙니다。

解産이便하고 살도쉬이올느게

—産前産後에쓰시라—

一家의 中心이되는 貴重한 母體! 今日의 健康을明日에 그리하야子孫을남기지안흐면 안될貴重한몸! 그가 産前産後에는 몸의 全組織이 第一衰하기가쉽고 조곰만한 放心에서 病魔에게侵入되기쉬운때입니다。그럼으로血行을 旺盛히하고 抵抗力을强케하며 疾病의豫防에努力하지안흐면안됩니다。

그에는 中將湯이옛날부터 第一이라고하고잇습니다 母體를安全하게하고 惡阻를고치고 食慾을增進케하고 安産을 圖謀하며産後에는 淨白作用을 식혀서瘀血을 빨니업새고新鮮한피를 길너서살을쉬이찌게하는데 良好합니다。産前産後에는 손에서놋치말도록하기를 願합니다。

라듸오

十八日(水曜)

◇午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카스에드…마ー키作曲 二、바르세로나…이반스作曲 三、祝祭行進曲…川口章吾作曲 四、東洋風舞曲…후보컵스키作曲 五、打令 崔英植編曲 新響하모니카알샘블指揮 崔英植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藝術」 李俊興

◇七時三〇分 國樂講座(一) 金雄珏

「國樂管絃」

◇同八時 歌曲 一、界面初數葉 二、二數大葉 三、羽樂 四、界面編樂 五、編 金蕙紅 金鼎桃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對岸의부흥지흠』 李承雨

◇同九時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山念佛 三、寧邊歌 四、노래가락 五、창부타령 李眞鳳 金玉葉 (東)時報

第一放口

◇午後六時(大) 童話劇

◇同九時三〇分 釜正高普新入生發表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大) 西國札所巡廻

◇同八時四五分(東) 라듸오聯曲

十九日(木曜)

◇午前一時〇〇分 中央高普新入生發表

◇午後零〇五分 하와이안기타ー音樂 一、아에카이 二、센트루이스·블루ー스 三、재빠사랑가 四、가봇트 五、두·유러브 六、헤어즈·오·딕·맷드 獨唱 張浪礎 하와이안기타ー 張明浩 우클렐레 張彝波

◇同三時十五分 主婦時間 〃어린이들外出時의注意〃 李七百

◇同六時 童話 〃소리업는鐘〃 鄭泰俊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田川孝維

「國語」

◇同七時三〇分 國樂講座(二) 〃國樂의諸般準備〃 金雄珏

◇同八時 獨唱 一、歌劇「로엔그린」中에서…바그너作曲 二、告白…베ー토ー벤作曲 三、小夜曲…슈ー베ー르作曲 四、갓지스칸…스칼랏티作曲 五、마리아·마리…카푸아作曲 安鍾承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夢中歌〃 唱 [illegible] 鼓手 韓成俊

◇同九時 連續野談 〃斗嶽神由來〃(第一席) 尹白南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家庭講座

◇午後二時 婦人時間

◇同六時 箏曲

◇同七時三〇分 講演

◇午後八時(大) 民謠

◇同八時二〇分(東) 淸元

◇同八時五〇分(大) 浪花節

二十日(金曜)

◇午後〇時〇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선야의 四、굿거리 奚琴 金德鎭 大笒 方龍鉉 細笛 韓成俊 杖鼓 池九龍

◇同三時一五分 趣味講座 「눈트는草木盆」 李德鳳

◇同六時 노래공부 (一)、물오리 睦一信謠 玄雲田外實演 兒童數名 二、개나리꽃 朴世永謠 同

◇同 復習時間 「藝術」 李俊興

◇同七時 世醫專新入生發表

◇同七時三〇分 國樂講座 「國樂作物의播種」 金雄珏

◇同八時(東) 파이프오르간… 日本橋三越로부터中繼 一、봄의山골님…프리몰作曲 二、洪牙利舞曲…第五番 브람스作曲 三、人形의結婚式…브라운作曲 四、星條旗여永遠하라…수ー자作曲

◇同八時三〇分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平壤歌 三、달거리 四、노래가락 牧丹 李竹葉

◇同九時 連續野談 『斗嶽神由來』(第一席) 尹白南

第一放◇

◇午前十時三〇分(東) 어머니講座

◇午後〇時五分(東) 漫談

◇同二時(大) 婦人의時間

◇同六時(東) 노래공부

◇同七時三〇分(東) 어린이와 家庭의밤

◇同八時(東) 파이프오르간

◇同八時三〇分(東) 라듸오·드라마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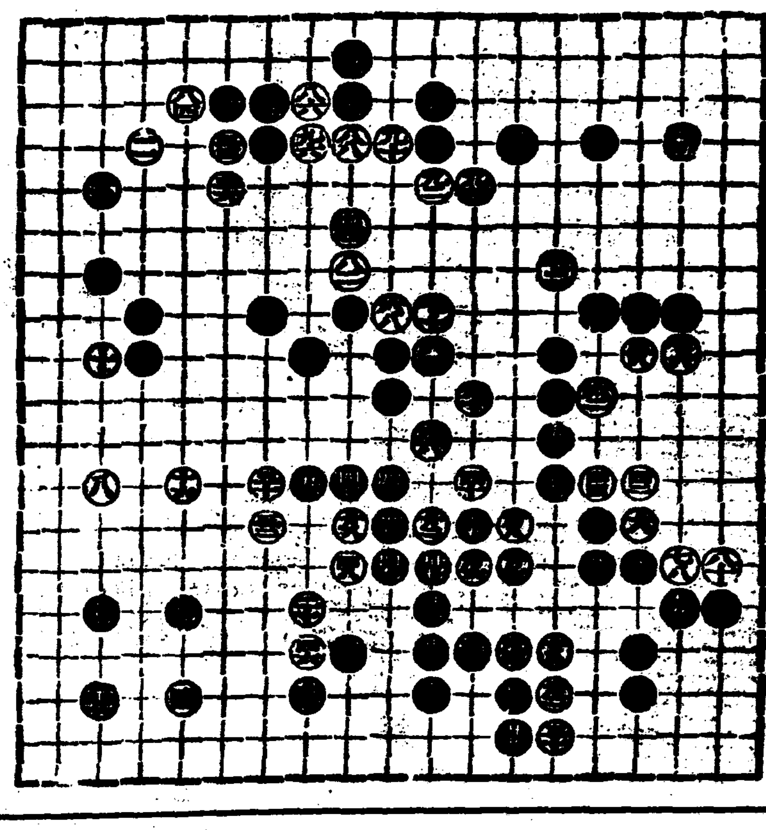
三月十九日(木) 二月建辛卯(二十六日) 庚子·土·奎·收

●春分二十一日(舊二十八日)

●驚蟄六日(舊十三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六)

白 丁[illegible] 黑先 [illegible]



乙의十五 子의七 寅의八 辰의三 壬의三 丑의三 子의四 子의二 子의四 癸의四 壬의五 壬의四 庚의五 辛의三 寅의三 丑의四

◆觀戰者談 黑九三(庚의四)과 白九四(辛의五)에 至하야 局面上黑에 幾分有利할듯한 感이 有하니 黑白攻防의 手腕如何에 依하야 玄玄名手가 綿綿할듯하다

小說家沈熏氏 映畵로再進出

일쯕이 映畵界에서 그 名聲을 날리든 沈熏氏는 그동안 小說로 轉換하야 다시 斯界의 놉흔 地位를 가지고 잇는바 今番다시 映畵界로 再進出을 도모하리라는 消息이 傳한다。위선 氏自作의小說 常綠樹를 自己손으로 다시 脚色하야 가고 音響版을 製作하리라는바 굼비된 人員은 다음과 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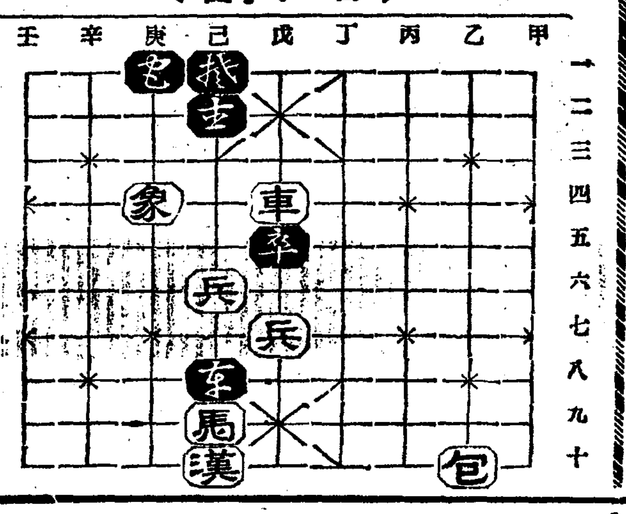
監督 沈熏
撮影 梁世雄
主演 姜弘植 全玉
特別助演 沈影 李鼎龍 尹逢春 金一海 安貞玉
扮裝 吳業舟
進行 朴昌勝

臨時事務所는 市內鍾路二丁目 高麗映畵株式會社 電光七八〇으로 來月初부터 곳 撮影에 着手하리라고 한다。寫眞은 人事次 本社來訪한 沈熏 姜弘植 梁世雄 李創用四氏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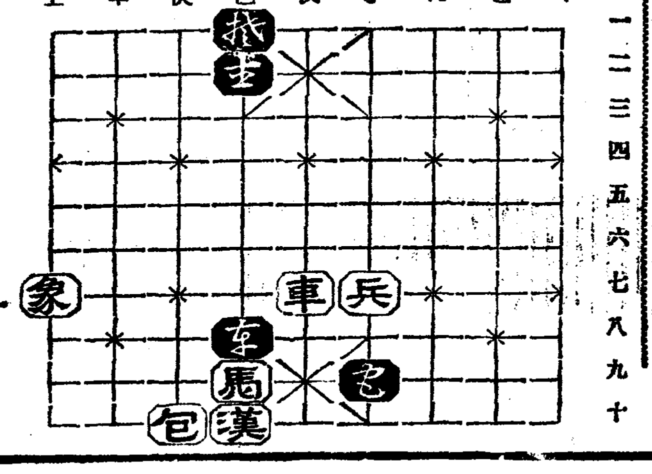
手先漢 第一兵 李在鳳 對 金漢榮

◀ 百二十手圖 ▶



◀ 百三十手圖 ▶

戊五車ー戊五打卒 庚一包ー庚九 戊七兵ー丁七 己八包ー己六打兵 庚四象ー壬七 己六包ー己七 戊五車ー戊七 己二包ー己八 乙十包ー庚十 庚九包ー丁九



各學校入學試驗問題

京城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國語科(第一日其一)

一、次ノ文中ノ漢字ニヨミガナヲツケナサイ。

法律を制定するには、政府又は貴衆兩院の何れかが其の案を作成して議會に提出する。

一國文化の程度は、其の國民が國法を守る精神の厚薄によつて測ることが出來るといはれてゐる。

二、次ノカタカナ書キノトコロヲ漢字デ書キナサイ。

1、セカイノダイトクワイ( )
2、ハクブツクワン( )
3、ノリアヒジドウシヤ( )
4、ミカンヤマ( )
5、コハルビヨリ( )

三、次ノ言葉ヲ入レテ短イ文ヲ作リナサイ。

1、たまたま
2、心ゆくばかり
3、振返つて見る

國語科(第一日其二)

一、左ノ文ヲ讀ンデ、次ノ問ニ答ヘナサイ。

昔、泉州堺のなにがし寺に或畫師久しく寄食してありけるが、何一つ畫がくこともなく、毎日遊び暮して旣に數年を經たり。住持は心得ぬ事に思ひて、或日其の畫師に、『君は畫を以て一家を成せる人なるに、數年の間一度も筆を取り給ひし事なし。我もとより衣食の費をいとふにあらざれど、何時までもかくておはすべきにあらねば、今は何處へなりとも行きて君の技をふるひ給へ。愚僧も所用ありて京に上り、或は一二年滯在せんもはかり難し。』といへり。

(1) 『心得ぬ事に思ひて』トハドウイフコトカ。
答
(2) 『畫を以て一家を成せる人』トハドンナ人ヲイフカ。
答
(3) 『愚僧』トハドウイフ人カ
答
(4) 『今は何處へなりとも行きて君の技をふるひ給へ。』トハ何故サウイツタカ。
答

二、左ノ文中ノ――線ノトコロノワケヲ書キナサイ。

雪舟畫師は1常にもあらず早く起出で、2ふすまに向ひてしきりに3筆を動かしゐたり。其の畫がく所皆錦にして、4筆勢非凡、5丹靑の妙言ふべからず。

1
2
3
4
5

三、左ノ文ヲ讀デ、次ノ問ニ答ヘナサイ。

陶山書院は退溪先生をまつれるところ、當時の書堂今なほ此所に保存せられて昔日の面影をとゞめ、來り訪ふ者跡を絕た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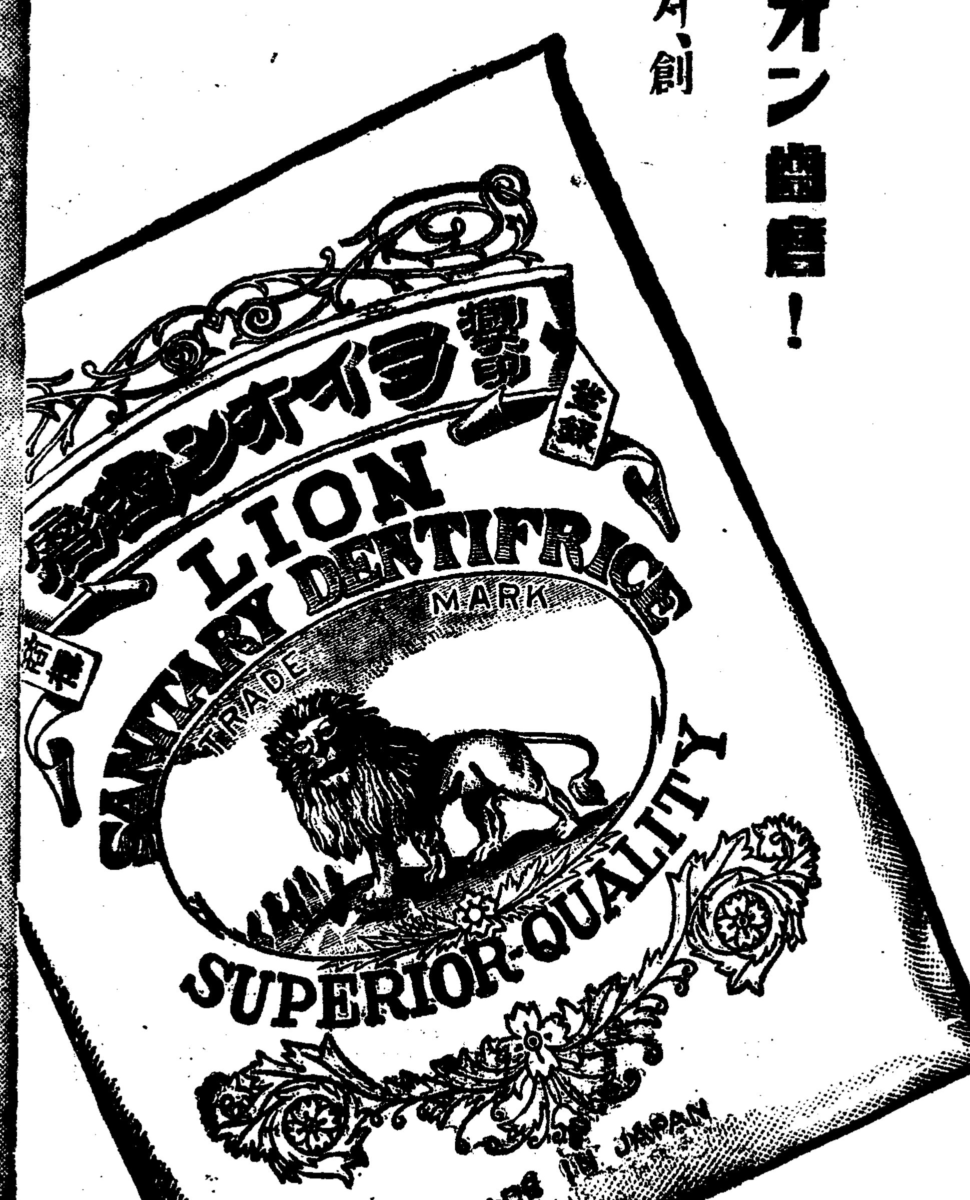
1、『陶山書院』トハドウイフトコロカ。(
2、『當時の書堂』トイフノハ、何時誰ガ、何ヲシタトコロカ。(
3、『昔日の面影をとゞむ』トハドウイフコトカ。(
4、『來り訪ふ者跡を絕たず』トハドウイフコトカ。(

四、左ヘ文中ノ――線ノトコロノワケヲ書キナサイ。

生後1幾何もなく父を失ひ、2赤貧の中に3人となりしが、4健氣なる母の歌を守りて學問に5いそしみぬ。

1
2
3
4
5

品質優秀



香味의清新과効果의 實用을자랑한ライオン齒磨!

世界에 자랑한 ライオン齒磨新工場에서 創業以來四十年의貴重한經驗에依하야製造된ライオン齒磨는진실로齒牙의美와健康의 必要를認하는 諸賢에는 널니 愛用되며 엇던家庭에나 必需品으로써 가추어두고잇는것이올시다

라이온치마분

ライオン齒磨本鋪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1103—9

아모런일이 잇드래도

이것만은 꼭 마구라의 약속을 직히지오 아지노모도만잇스면 맛잇된 장찌개한가지라도 제먹을수 잇스니까요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四季朝鮮料理法」 定價五錢 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勞業○勤人副業○收多無休○商賣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新傳社 博文堂

前途잇는靑年이여 淋疾 좀으로苦痛말나 各有名藥店에잇슴 ネオチリン(네오지린) 먹으면根治하야진다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三月十八日より二十四日まで 上映時間表 朝日國際ニュース 漫畫 納本桃太郎 江戸みやげ子守唄 伊藤大輔作品 高田浩吉、歌川絹枝、淺香新八郎 悲戀華 佐佐木康作品 八雲理惠子、桑野通子、日下部章

三月十七日부터三日間大公開 特選三大作品特別興行 每日三回興行 夜間二回續映 七時半始映 大衆料金 階下席十五錢均一 P·C·L·社全發聲 木村莊十二監督 三色ビルディング 德川夢聲主演 國境肉彈隊 悪魔의曲藝團 第一劇場

三月十四日封切 每日三回 렘플아기신년세배(카라ー) 團成社 うら街の交響樂 杉狂兒、小杉勇、川文子主演

十九日ヨリ五日間特別封切大公開 都會の怪異七時〇三分 ガラスの鍵 最後の駐屯兵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五四番

躍進仁川의貿易額
二個月間九百萬圓
但白米만은檢査關係로不振
比前年同期三百萬圓增

【仁川】약진인천항의무역액은작년일년중에 이억원을돌파하얏스며 금년에도정초부터 계승되야일이월이개월간의 무역액은 구백십만이천 칠백십삼원에 달하얏는데 작년동기에비하야 약삼백만원의 증가를보이고잇으나 백미무역액만은 정조검사제로 인하야작년동기보다 약사십만원의감소를 보이고잇다한다

博川公立普校 學級增設期成

【博川】평북박천공립보통학교에서는 매년신학기마다, 입학지원아동중 백여명이나 취학치못하는 참경에 빠저잇는데 금년도 역시 모집인원 백사십명에 대하야 지원자는 이백삼십여명이라는 엄청난수효로써 입학되지못한 아동 부형들에비탄과 학교당국의 고민을 업세려고 지난십사일오후한시에 박천면유지 륙십여명이 동교내에모여 토의한결과 만장일치로 학급증설을 가결하는동시에 긔성회를 조직하야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되엿는데 선거된간부는 다음과갓다한다

會長洪淳龍 副會長吳允賓 幹事李顯求 兪九七 金在清 韓瑩奎 金聖五 李陽善 洪淳章 委員 李昌熙 金熙俊 兪元男外 三人朴時彥 金鳳燮 柳之博 金泰謙 李鳳錫 宋光謙 朴鳳祿 崔宗禎 朴炳業 洪淳鐵 金炳三 朴斗星 徐載元 吳淳健 玄鎭根 李正芳 顧問柳世鐸

故孫鳳祥氏追悼會

【開京】개성 고려시보사(高麗時報社)에서는 해사 고문(顧問) 이든 고손봉상(故孫鳳祥)씨 추도회를 개최한다는데 동인은물론 일반희망자도 만히참가해주기를 바란다한다

時日 三月二十一日午後七時 場所 高麗青年會館

二百萬圓資本金 人造絹原料會社

【會寧】대천평삼랑(大川平三郎)씨등이발서부터계획하고잇는동만주(東滿洲)와조선에 인견(人絹)『파루뿌』공장 경영계획은 그뒤 착착구체화 해저서 조선안 공장은 두만강(豆滿江)연안의 목재를 원료로하고 회령(會寧)에 공장을 설치키로되여 어미 어공사를 대림(大林)、대창(大倉) 두청부업자에게 결정을 시키고 잇는데 공사비만도 이백만원내외에 달하는 큰공장이다。 그리고 이것의 제이공장은 간도(間島)에 두게될 모양이라한다

無辜한通行人을 十餘處亂刺致傷
例의"세파드"를시켜물리기까지
安東稅關吏又復蠻行

【新義州】안동현세관리의 불법 행동이 빈번함은 루보하는 바 어니와 지난 십륙일 오전세시 경 또 안동현세관리가 밀수단(?)을 추격하야 조선땅인 북하동(北下洞)강안에서 맹견을 내여놋코 단도를 휘두르며 사람 한명을 칼로 열한곳이나 찔러 인사불성의 지경에 이르게한 대 참사가 잇섯다 즉안동현 강안 동에 주소를둔 조선인청년 바 지송(朴枝松)(二ㅇ)은 몸에 아모 것도 가지지안코 전긔시간에 사막(四幕)으로부터 압록강을건 느다가 밀수단들에게끼어 안동세 관리 륙칠인에게 쪼겨오든중조 선땅인 북하동에 다다랏슬때에 맹견이 뒤를따라와 다리를 물 게하고 또어름이 밋그러워 너 머지자 추격하든 세관리들은칼 을 들고 밧지송의 등과 다리 와 머리등 전신에 열한곳을란 자하야 혼도케 하얏는데 어름 우에는 붉은 피로 물드린 광경 이 처참하얏다 한다 세관리가 죽은 줄로 알고 도라간후 동 리사람들이 이를 메여다가 신 의주태산의원(泰山醫院)에 입원 식혓는데 응급치료를한결과 그 적적으로 생명에는 별위험이 업 스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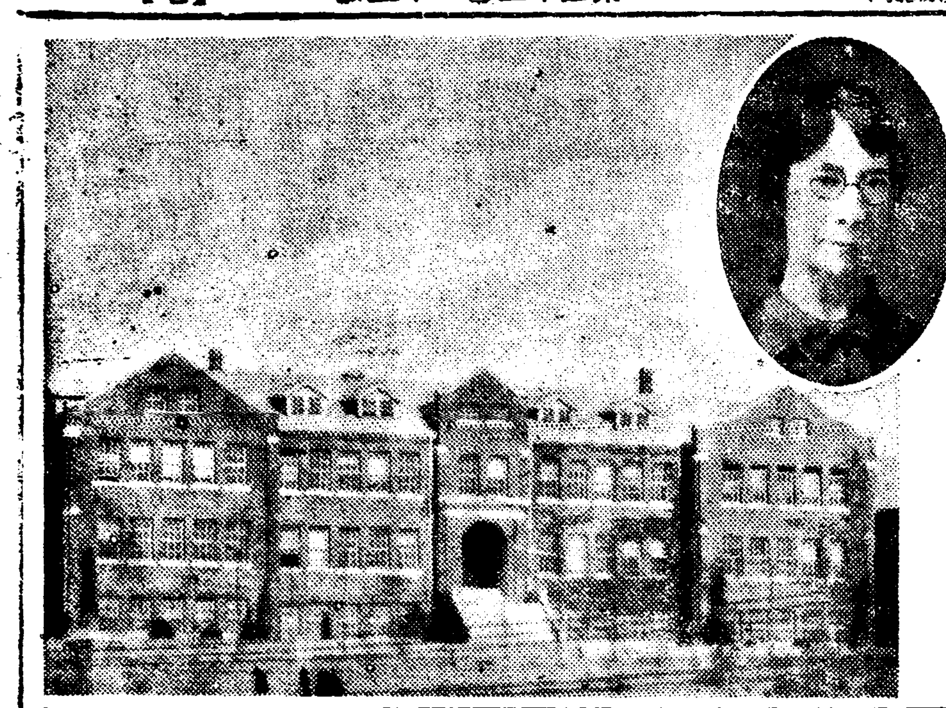
三十六建議案中 二十七件을採擇
慶南道會議終幕

【釜山】경상남도회의의 최종일 인 지난 십륙일회의석상에서각 의원으로부터 삼십륙건의 건의 안이 제출되엇는데 그중 이십 칠건만 만장일치로 결정하얏다 그중 중요한것은다음과갓다한다

▲敎育에關한事項
一、農林學校設置의件
一、實業補習敎育擴充의件
一、官立師範學校設置件
一、外에二件

▲勸業에關한事項
一、民有林開發을爲하야林道의增設의件
一、最近硫安의市價가 業者들의結托으로 暴騰하얏스니 當局에서는此에對한處置의講究의件
一、叺檢查制度를生產檢查制度로改制하던지又는撤廢의件
一、外 五件

▲土木에關한事項
一、行政區劃整理改訂의件
一、洛東江守山橋架設의件
一、外 十二件



正義女高
身體健全에置重
女"스포츠"界覇者
無愧!"意氣正義女高"

서조선지방감리교파중에서 오직 한아인 녀자중등교육긔관인 정 의녀자보는 평양부내 중앙인남 산현(南山峴)남편모퉁이에 옷뚝 소사잇서서 평양전시가를 부감 하고잇다

가지저고리에 검은치마의 교 복을 맵시잇게입고 운동장에서 활발하게 뛰노는양은 결코자미 업는 평이안이지만 구제비의아 릿다운 무리들이 대공혁날라가 면서 정답게 재재거리는모양과 도 흡사한바 잇다 정의녀고보 는 대정구년 오월십륙일 숭의 녀학교(崇義女學校)에서 분교하 여가지고 미국감리파선교사 문 요한씨명의로 인가를 바다창립 된 신교육력에의한 수업년한사 년의 녀자고등보통학교이다

현재에는 이십여명의 교원이삼 백팔십명생도들에게 꾸준한 수 업을하고 잇는터인데 사면팔방 에서 운집하는 영재의 수가년 부년 격증하고 잇서서 현재의 교사는 발서 협착을 고하고잇 는현상이다

긔숙사의 완비를 비롯하여할 평실 재봉실등 주부의 도덕을 수득하는 긔관의 완성되여잇슴 은물론 조선녀성계 제일선에서 활약하기에 필요한과목을 무엇 한가지라도 준비안된것은 업다 특히 정의의교육정신은 건전 한신체를만드러 씩씩한활동을하 자는데 치중이 되여각종『스포 츠』방면에 대약진을 하고 잇서 서 작년중에도 정구(庭球) 롱구 (籠球) 탁구(卓球) 배구(排球) 등 각반대회에 우승하여 교장 실은 우승긔와 『우승컵』에 차 혀잇서서 『의긔정의녀교』를 충 분히 련상케한다 또한 이학원 에서 치워난녀자로서는 노래한 마듸 못부르며 연설한마듸 못 하는사람이 업을만큼 음악과웅 변술방면에도 치중하고 잇서서 남산현대이에서 흘러나아오는 류랑한 『멜노듸』는 십팔만부민 의 위안의 량식이되고도 남을 것이다정의의 보금자리에서 곱게 곱게 자라난 졸업생들과 현재 길리움을 밧고 잇는 생도들은 비록 학교의 변치는 그러케까 지 장하다구는 안치만은 반 대로 조선녀성사회에 끼친바공 헌은 실로 위대한바잇섯고 더 욱이 녀자『스포츠』열을 고취하 여 일반녀성으로도『스포츠』에 리 해를하도록 만드럿다는 점으로 리로서도 만흔의 정의를표하는 바이며 대동강『원더─스포츠』의 단체적 훈련을 개시햇다는정도 장하다고할것이다

정의녀고보! 정의녀고보! 풀레이! 풀레이! 풀레이!

(平壤支局一記者)

◇寫眞…正義女高普全景과 校長 賈愛多氏

私立中等學校巡禮 (五)

任實火災部落民에
눈물의同情金品
지난十五日現在의統計

【全州】지난오일 오후 다섯시경에 임실군운암면학운리(任實郡雲岩面鶴雲里)홍봉주(洪奉柱) 방에서 발화되여 삼십팔호의 일부락중 삼십칠호를태우고 이십일호가 전소되엿다함은 긔보한바 와갓거니와 그후 일백삼십오명 리재민의 금후생도가 매우문제 되여 오든중 그동안 린근부락 민의 갸륵한동정으로 근근십여일을 지내왓스나 무엇보다도주 택문제가 급선무라하야 일반의 만흔동정을 바라오든중 전북도 지방과에서는 위선 각리재민에 게 십일가량먹을 식량대가이백 사십삼원과 가옥건축비매 호당십 오원평균 삼백십오원을 보내엿다 하며 린근부락민과 각단체에서는 인류애에 넘치는 동정심의발로로 쌀과돈 건축재목과 심지어 『용마름』까지수합하야리재부락으로 보내엿다는데 지난 십오일현재로 다음과가튼 눈물겨운 동정품이 답지되엿다고한다

▲任實郡乃馬振興會에서 白米一石四斗五升 建築材木一千五百個 蒿藥四十六枚 現金一圓 ▲同 雲岩面十五個部落民에게서 現金二百圓 蒿藥三百七十四枚 繩一萬一千四百五十把

唐津의叺織競技
自十八日兩日間

【唐津】당진군 농회주최 가마니(叺)경기회는 금월십팔일오전 십일시부터 이일간 군청 합덕(合德)량처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다는바 일면이조식으로 당진 송산 송악 고대 석문의 오개면은 군청에서 기타의 합덕 개천 신평 순성 연천 오개면은 합덕에서 행하기로하얏는데 가마니는 곡용좋은 벼로가마니로하고 상품은다음과갓다

一等 廣木一匹 二等廣木半匹 三等 食器 十圓式 四等고무 [illegible]式 地下足袋 五等 手巾一[illegible]

朱乙驛構內에서 通學生이慘死

【朱乙】삼월 십륙일 오전열시 십분에 청진으로부터 주을역에 도착하는 렬차에 주을보통학교 일학년통학생 한명이 거차에 치어 참사하엿는데 현장은 목불 인견의 참상으로 그생도는 함북 경성군 주을면 직동(鏡城郡朱乙面直洞) 리민수(李敏洙)의 이남 리양춘(李陽春)(ㅇ)으로 판명되엿다 한다。

全州邑上水道 貯水池改修案
府當局腐心研究

【全州】태심한 한발이 계속되는때마다 음료수궁곤으로 우려되는 전주상수도 저수지에 대하야 전북도토목과에서는 확장할 필요를늣기고 최근 조사연구한결과 현재의제일저수지의 용적을 약십배로 놉히여 륙백여만석의 음료수를 저수할수가잇다는데 공사비는 약삼십만원가량을 요하리라고하야 전주부에서도 상수도 [illegible]다

中部線工事中에 古代寶物의發掘
考古學上의큰福音

【大邱】동해중부선철도 공사중에 일천삼백년전 사천왕사(四天王寺)의 초석(礎石)이 땅속에서발굴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십오일에 재차부근、고분(古墳)에서 다음과가튼 십여종의 귀중품이 발굴되엿슴으로 경주고적보존회에서는 정리에 분주중이라한다

▲純金製耳飾一對 ▲勾玉附[illegible] ▲碧玉胸飾一連 ▲太刀二振 ▲[illegible] ▲銀製腰飾斷片 ▲銀製指輪二個 ▲同帶飾金具斷片 ▲[illegible]一個 ▲銅碗一個 ▲[illegible] ▲土器類多數

資本金五百萬圓의 洋磁器工場出現
仁川府外長意里에基地를買入
一般商界에또큰衝動

【仁川】공업인천에 대자벌진출은 우후죽순의 형세를 보이고 잇는데 대판(大阪)목전제작회사(牧田製作會社)에서는 금번시외 장의리(長意里)에 거지사천여평을 매수하고 방금 기공사무에 분망중인바 전긔공장자본은 백만원의 대자벌로 제품은 법랑철기(琺瑯鐵器)(속칭─양재기)라 하며 사용전력이 일개월 십만 『키로왓트』라는 대공장이라하야 방금 각방면으로만은 충동을주고잇다한다

開城에小火

【開城】십륙일오후네시에 개성부북본정(開城府北本町)삼오이번지리종소(李鍾昭)(ㅇ)집에서 돌연히 불이나 일호일동을 소실하얏는데 원인은 부억에든 나무에불이 땅긴 바라한다

議員全員一致로 廿四重要案建議
◇…中等敎育機關擴充等等
黃海道會最終日經過

【海州】황해도회최종일인 지난 십칠일 황해도회의석상에서 도회의원 전원일치로 다음의 중대한건의안이 십사건을 제출하 엿다

△建議案
一、中等敎育機關擴張의件
一、稅務分署設置의件
一、未成年者飲酒喫煙嚴禁의件
一、金化南川間二等道路改修의件
一、漏川橋速成의件
一、道立農業學校設置의件
一、道立醫院分院設置의件
一、肺結核豫防機關施設의件
一、道路賦役制廢止의件
一、載寧江及西江第二期改修工事促進의件
一、私立中等學校에道費補助의件
一、沙里院邑府昇格의件
一、各郡邑面에職業紹介所設置의件
一、朝鮮鐵道黃海線延長의件
一、消防用水槽設備의件
一、廣軌鐵道敷設變更의件
一、黃州重粮漁船着場設置의件
一、穀物檢查所黃海道支所設置의件
一、玄米製造奬勵의件
一、產米改良復活擴充의件
一、郡部物產奬勵陳列所設置의件
一、谷山郡에서伊川郡佳麗谷에至한道路改修의件
一、海州馬山面二等道路改良及棗野新院間 棗野東江面間 等外道路를 三等道路로의昇格의件

大賭博團에게 罰金即決處分

【新義州】신의주 영림서 직공(營林署職工)문이현(文二鉉)(ㅇㅇ)은 지난십오일밤 신의주 미륵동(彌勒洞)이백이십칠번지 정희 라는집에서 다른여덜명과 자리 한번에 일원으로부터 십원식을 걸고『황금』이라는 도박을 하고 잇든중에 신의주 형사에게 발각되여 모다 신의주서 검거되 바 지난십칠일 모다벌금 이십 원으로부터 오십원까지의 즉결 처분을 하얏다한다

萬圓價土地喜捨
中等敎育基金으로
其他窮交貧族에도多大同情
─珍島韓承履氏壯擧─

【珍島】전남진도군진도면성내리 한승이(全南珍島郡珍島面城內里 韓承履)씨는 지난삼월십일회갑을 당하야 진도일원에 중등교육긔 관이 업슴을한탄하야 『논』칠십 두락 『밧』사십두락(시가약팔천 원)을 중등교육긔본금으로 희사 하고 현금천원으로는 珍島面敬老會 一百三十五圓 珍島面城內里貧民第一期戶稅四十圓 珍島面普通學校 六十圓 各面六個所 普通學校 百二十圓 三個所簡易學校 五十圓 珍島面基本財產造成 百圓 其他數個所에分配 도시저 팔백개(匙箸八百個)로서 륙십세이상노인에게 분배 금침 이십벌(衾枕二十件)으로는 팔십 세이상의 노인에게 배부 대맥열 가마(大麥十叺)로는 진도면성내 리 세궁민에게 배부하엿다고한 다 ◇寫眞……韓承履氏

中等校合格者

尙州農蠶校(四十八名)

宋宗燮 金泰永 孫吉相 崔鏞福
金圭琫 尹沖赫 李倫運 李炳赫
盧馨九 鄭雲英 高英秀 尹沁
金演相 金明俊 申彥輔 李國彥
張玉相 金萬燁 呂熙東 金漢敬
李聖雨 黃瑢煥 李甲濂 朴世鎭
金永來 朴東濟 張周炫 金振熙
金商東 金光哲 金福伊 許鏞
李瀷求 李光民 李必雨 金永基
昔鳳友 高順錫 金國鎭 劉鍾郁
金秀鴻 裵俊秀 朴台根 李龍和
金重熙 李鉉五 金鍾夏

大邱農林(朝鮮人七十二名)

黃秉泰 朴泰鎭 李基準 金世悌
司空璋 韓亨愚 權重爀 李平夏
金相泰 鄭在根 李相昊 金俊晧
嚴杜鈞 李壽星 吳海島 柳聞坤
金安宅 金日坤 朴成鎬 金鍾岢
崔光石 李東鉉 金相旭 崔海鎭
辛永珉 康斗滿 李堯煥 金在鎭
鄭載冕 金德燁 金景鎬 金東鎭
陸鍾邃 金義會 鄭鍾均 河文奎
裵景煥 河錫學 孫晉七 禹林基
李彬鎬 申春鳳 鄭東大 權赫敎
徐根洙 崔達洙 金潤榮 宋卓鎔
金癸東 尹周燮 許江 李鎬潤
吉經宙 金炳元 康武壽 朴千祥
鄭春植 鄭尙謨 朴秀春 鄭永鎬
尹午龍 金永鎬 朴烋 具福會
金奉文 李相吉 李用熙 申谷煥
張恭植 孫兌鉉 金裕澤 禹基一

新義州商業(朝五四人)

金炳郁 福永嚴 金應朱 金浩榮
金有吉 朴用孝 金生寶 金濟浩
張成花 金在河 車載成 洪道榮
申錫根 金龍朱 朴龍淑 趙正鏞
崔明浩 李承明 田至興 盧晉根
金明常 金永進 明大勳 金明鋼
金昌鏞 金聖燁 柳浩德 金京燦
張瑋祚 林永男 咸錫九 李昌林
吳應鉉 白元浩 金永植 金熙龍
許履鋼 金奎燮 玄相俊 裵晶天
張在緖 金炳憲 金龍俊 張忠欽
盧秉寬 趙成濂 李永鎭 李宗元
李炳權 林鎭雲 李炳燮 崔泰植
鄭仁甲 李昌彬

新義州高普(百六名)

韓世榮 李弘植 金興球 金日興
張道英 徐鋼鎬 金東明 徐日龍
盧敬干 鄭聖植 李台原 金用洪
白元奎 張龍寶 李亨燦 金錫淵
崔致善 宋慶燮 安龍浩 金載赫
劉漢德 盧承益 金三俊 鄭健燦
朴永俊 桂勳榮 桂海順 吳昌鎬
桂炳偶 金元燮 鄭庸彥 金基曾
吳炳植 金致憲 李應泰 金配命
金應浩 崔翊鎬 李永模 安仁甲
鄭孝範 金鶴鉉 張南善 鄭致根
金秉祐 姜基允 崔禎相 朴晟彥
金寬鎰 黃仕龍 吉冕壽 張載亨
金龍齊 李公緖 文時榮 共完植
韓光寶 尹東鎭 白禮源 咸德濡
金洛麟 金學俊 金基福 安義俊
趙麟熙 梁瑞旭 吳一甲 張晶益
鄭基洙 金昇奎 兪景麟 朴仁俊
金容鎬 朴昌儀 李尙勳 張滑梓
金奉燦 白泳昊 金成喆 張益勳
李忠相 白氣浩 白永熙 金漢奎
吳潤根 崔德燁 吳鉉坎 梁輝亮
崔元榮 姜轅昱 崔承寬 白東燮
禹完瑞 李成柱 李貞淳 安國柱
劉漢賢 李南壽 蔡斗亨 韓商鎬
朴良杓 崔周鳳 金在澔 金典會
金賢基 任大熙

開城商業(朝鮮人九十五名)

金鎭德 李相源 張官鋼 朴潤洙
南廷完 邊興柱 金長學 閔根植
仝永淳 申英善 金容承 閔丙燁
金智國 李南珪 張俊錫 鄭載榮
李佛東 金重鎬 金相益 鄭永模
趙益禎 南廷鉉 劉永燦 鄭宗模
沈性基 金復永 尹南重 李在玉
孫亨來 吳世旭 朴殷秀 張奎章
李寬熙 李景燦 許載烈 閔丙宙
張相宣 姜世煥 趙東寬 黃祐敦
韓錫鎬 張元鎔 閔寅植 禹在炯
柳基英 李漢雄 金元浩 李河鎔
張貫秀 李祥鏞 禹相淳 金仁模
金性均 李祖鏞 崔洛鎬 金洪天
李光孫 金東郁 洪璿杓 閔光運
孫昶來 朴漢瑢 金基榮 金浩根
金寧鎬 李賢組 崔漢洪 李杜成
金景浩 馬鍾珣 朴明漢 李鍾根
朴龍鎭 秦炳韶 金英一 李敏植
金大吉 李熙復 劉信鏞 金東洙
朴淳東 禹相天 崔義鎭 黃鍾觀
秦熙相 李宅周 洪斗杓 洪性杓
金東善 金永燾 金達炯 許鉀
李濟在 金東明 李達炯

寧邊農校(五十三名)

崔重河 禹永弼 金銑燾 金炳星
金應彬 李通善 白經欽 崔公憲
崔學珪 吳一德 白英鎭 桂英善
李亨甫 吉龍洙 金宗國 金鼎浩
林星珠 朴允承 金仁國 金天福
金鳳仁 吳日晉 韓光俊 韓命珍
申達弘 金光錫 申善奎 明德賢
康淳滯 韓雲鍵 李熙洙 車載權
洪成泰 蔡亨峻 明晏植 金鎭洙
蔡用秉 金得榮 康日舜 金寶元
崔日梧 梁斗鐵 鄭利弘 金啓泰
梁大斗 白濟行 鄭祥國 金石橫
金利潤 車永祚 金均煥 康尙根
金澤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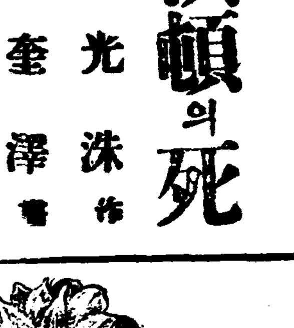
裡里農林

◇農業科(朝鮮人二十三名)
金完圭 田炳寬 曹萬鉉 鄭奉泰
姜驥錫 蘇鉉永 南廷傑 蘇昌永
姜仁鎬 金相基 金奉烈 南宮撤
李惟載 梁載南 金炳容 丁奎益
林鳳默 金萬永 李允敎 金孝英
李炳泰 金相柄 金相泰

◇林業科(朝鮮人十六名)
崔永烈 梁甲承 南廷賢 鄭憲甲
崔祐烈 金容鐵 庾炳釆 文甲鎭
趙南臣 高信坤 裵秀坤 李在鴻
金允河 禹洛觀 李振榮 朴泰

◇獸醫畜產科(朝鮮人十六名)
朴東鎭 鄭蓮喆 金池熙 黃正炫
李昇豪 姜泰仙 朴潤相 李英基
趙成河 崔仁植 朴有根 趙昊植
趙乾植 嚴衛淳 康兌華 辛權善

異次頓의死 【119】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이날 이차돈이 길에서 장안 백성을 모아노코 법을 설한일 은 서울 사람에게 큰충동을이 르켯다。이날 밤에는 가는 곳 마다 이차돈이 백성들에게 설 법을 한것과 돌로 이마를 마 자 피를 흘린것이 이야기 거 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차 돈이 그 자리 에서 죽엇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차돈이도 술을 부려서 공중에 솟아올랏 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차돈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불ㅅ길이 되어서 타올랏다고도 하엿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가 된것은 이차돈이 백성들을 대하야 조정에 잇는 대관들이 모도 임금을 속이고 임금을해 하려한다는 말이엇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나? 저 선마로이손을 두고 하는 말야 인제 두고만 보아 이차돈이선 마로를 해낼테니。 그리되면 공 차 평양공주부마에 태자를 동 하신다는말까지 잇서。백성들이 어떠케 이차돈을 두려워하는데 그러시오?』

하고 알공은 살살 선마로의 배 위를 긁는다。

『태자? 또, 아직도 이차돈을 태 자?』

하고 선마로는 놀란다。

『선마로이손, 아직 모르시오? 오늘 지밀나인이─이몸이 돈을 먹여서 심부름을 시키는 지밀 나인 말슴이오─지밀나인이 그 러는데 어제ㅅ밤에는 이차돈이 평양공주방에서 잣다오。그리고 오늘은 아조 상감께서 이차돈 을 공주부마를 삼으시고 태자 를 봉하신다고。아마 가웟날 신 궁에서 조칙을 나리실 모양이 오。그런데 선마로이손께서는 아 직도 그 일을 모르시오。이몸 은 이손께서는 벌서 아시는 줄 알고─』

목이손、알공한아손 다 경을칠 결。이차돈이 본래도 천하영웅 인데다가 불도를 닥가서 도술 이 어떠케 노픈데。』

이러 말들을 하게되엇다。

이 일이 선마로이손 일파를 김히 자극한것은 말할것도 업섯 다。

이날 밤으로 선마로의 집에 는 공목과 알공이 모엿다。

『그놈이 분명 돌로 마잣서?』

하고 선마로이손은 매오 흥분 된 어조로 물엇다。

『분명 마잣소。이몸이 눈소 보 나 다름이 업소』

이것은 알공의 대답이다。

『그런데 그러케 어터맛고도 가 만히 잇더라고?』

하는것은 선마로。

『예。그린드시 나무로 깍가세 운드시』

하는것은 알공의 말。

『그게 더욱 밉고나。그래 그 놈을 그냥 살려 돌려보내?』

하고 선마로난 분개한다。

『그냥이 무어이오니까。백성들 이 모도 이차돈 무서워하기를 어떠케 무서워하는데 그러시오? 본래 칼을 잘 쓰는 줄을 알 아、게다가 불도를 닥가서 도 술이 놉다는 말을 들어。그나 그뿐인가、상감께서는 이차돈을 사랑하시와서 궐내에 두시고 장

하는 알공의 말이 끗나기도 전 에 선마로는、

『무어? 이차돈이 공주의 방 에서 잣다?』

하고 알공과 공목을 본다。공 목도 그 말에는 놀라는 빗을 보인다。

『예。어저께는 날이 밝도록、 해가 뜨도록 이차돈이 공주의 방에서 잣다오。아마 처음만도 아니라나 보오。어떤 날은 공주 가 이차돈의 방에가서 자고 어 떤 날은 이차돈이 공주 방에 가서 자고』

『무어? 공주가 이차돈의 방 에?』

하고 이번에는 공목이 그 가 는 목을 길게 빼며 뭇는다。

『예。공목이손도 인제는 해괴 한줄을 아시오? 어제ㅅ밤에도 처음에는 공주가 이차돈의 방 에 가서 자다가 밤이 깁허서 돌아왓는데 공주가 이차돈을 혼 자 두는것이 마음이 아니 노 혀서 이차돈을 불러서라오』

『무엇이 마음이 안 노혀?』

하는것은 선마로의 말。

공목은 심히 해괴하다는드시 눈을 감고 고개를 돌이돌이하 면서 몸을 흔든다。

알공은、

『아니 그것도 모르시오?』

하고 신마로와 알공을바라보다

腦는꼿?
生殖腺은 人體의뿌리!
뿌리의强健發育으로
人生에꼿피고 成功의結實이된다

草木은뿌리로부터肥料를吸取하고、가지끗까지樹液을보내여고흔꼿이피나、人間은生殖器가뿌리입니다、生殖腺의內分泌하는호르몬이腦를길느고、元氣腦力의根源을만들고잇슴으로 生殖器의發育不全과機能障害는 人生의 幸福을 完全하게하지못하게 할뿐안이라 腦神經衰弱을 일으키고주저주저

各博覽會名譽金牌受領

하야意志업는사람이되나、日獨佛專賣特許 ホリツク眞空水治器를目下가秘密簡易하게 生○器에 直接 使用하야서具體的의物理療法을行하즉目前에眞空吸引力을일으키여서 生○器에 新鮮한血液이流集되고、組織을擴張하고發育力을喚起하야서 그效果가매에나타나는 同時에理學的『엔크뒤』作用을發生식혀서性神經衰弱을

復活케하고自然行爲、過房의害遺精、早漏、陰萎、機能障害를回復식혀서 弱小彎曲도健全發育케 한우에 生殖機能이健全하여지는同時에 男子의特徵인腦力元氣의根源인生殖腺호르몬의 內分泌도豐富히됨으로

腦力 記憶力을增進케하고 자미잇게工夫와 活動한事業한보람도나와서 前途가 光明하게되고 回復者이길분 소리가 꼭꼭소사 납니다 萬物의發育하는 씨─손인이봄날을機會 삼아빨니實驗하고、男子의 一生資格을 完成식히는대 努力하시와 꼿과 열매를맷는 多望한 運命을 開拓하시라。

日獨佛專賣特許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證明
博覽會名譽金牌受領

◇ホリツ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內地二五錢 植民地五五錢

包莖 登錄商標 자르지안코秘密히成形됨
◇ホリツ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內地一五錢 植民地四二錢

◇代金引換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說明書添付─ 匿名으로密送

◇無料進呈
(非賣品) 圖入說明書

進化의秘密을開放的하로滿載하고、本器의內容도詳細說明、特히生殖器弱小男子의 深刻한悲哀의事實、回復者가滿悅을어든感謝實驗文도多數揭載되엿다、꼭一讀하라秘密安心하고葉書로照會하시오、全部無料로匿名密送함

◎偽物 效果不完全한속기상으로模造品가잇서 注意하시고 ホリツク의商標잇는ホリツク醫學眞空水治器를要求하시오

東京芝區神谷町十八
醫學 東京 新療法研究所
電話芝(43)一三三二番 振替東京 七七五九番

"新財政經濟政策"

政策發表內容은漠然

(上) 申泰鎬

廣田新內閣의政綱은 어떠한 內容으로·發表케될가 함에잇서 從來의內閣以上으로 重視치안흘수 업섯든것이다 이미 그組閣人物 또 그동안의 波瀾曲折을 거듭하엿든 軍部와의 關係로 보아서 廣田內閣이 어떠한 旗幟알에 잇슴을 눈치 채엿다 더구나 그中에 잇서 馬場新藏相으로부터 財政經濟方針에對한 聲明이 잇섯든것을 가지고서 新內閣의 政策이 어느곳에 根據를 두게되는지를 잘 살펴볼수가 잇섯다 그러나 政綱發表는 다시 疑心할餘地가 업시 完全한正式聲明인만큼 이미 어느程度까지 判明되엇을지라도 다시 그政綱의 發表內容如何를 注目케되엇든것이다。

×

이처럼 注目되든 政綱은 十七日閣議決定에 依하야 發表되엇다 그런데 이政綱內容을 보고는 얼마큼 意外의感이 업지안코 또는 그內容이 넘우 不鮮明치안흔가 하는생각을갓게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하면 大體두가지의點을 들수가 잇다

(一) 從來의內閣政綱發表는 微溫的에 傾하야 될수잇는대로 當面問題의 解決에 汲汲하고 이로써 現狀을 維持하라는데 注力하여 온것이 事實이며 딸아서 이것이 軍部를 비롯한 一部로부터의 非難과 排擊을 생기게하엿든理由로되엇다 그럼으로 이번의 新內閣은 從來의 內閣에比하야 그立場이 달러 新時代의潮流에對한 把握은勿論 軍部의主張에對하야도 一部 或은 그全部를 尊重치안흐면 안될 事態에 잇슴은때문에 廣田內閣은 무엇보다도 國政一新을내걸고 政府와 積極化를 圖케될것은 이미 다시 疑心할餘地가 업게되엇다 이와가티 從來의 內閣들과 달른 特別한 意義를 띄인 廣田內閣의 政綱內容을 보면 이것을 압두고 생각한것과는 그距離가 너무멀엇다 卽軍部의 主張에 追從하는것을 裝飾하라는 文句를 느려논 程度에 不過하야 結局 鮮明한 何節이 눈에 안띄이고 오족 그것을 一讀한뒤에는 漠然하다는 느낌을 갓게할뿐이라는 點이다

×

(二) 그政綱發表中에잇서新財政經濟政策에關한것을 풀라내이면 過般 馬場新藏相이 方針을 聲明한 세가지點 卽 赤字公債의增發、增稅、統制經濟의 進出을그대로縮寫하야옴겨노흔데도 財界에 金融化를 아니일으키도록 될수잇는대로 「努力」과 「盡力」이란曖昧한 文句를 加入함에 焦慮한자취가 보히는點이다

이와가티 政綱發表는 그동안 [illegible] 具體的政綱發表를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從來와가튼 [illegible] 內閣에 잇서도 이新內閣의 政綱內容과가튼 曖昧한 內容은 보지못하엿다 이것으로 보아서 廣田內閣 그中에 잇서도 馬場財政經濟政策의 前途가 一層 多難함을 미리 생각할수가잇고 또는 結局 이번의 政綱內容도 從來 內閣과가튼 微溫的傾向이 잇슴이 看過할수업는點이다

×

그런데 무슨까닭으로 廣田內閣의 政綱內容이 이처럼 國策一新에 伴하는 積極化에 對한 具體的進路의 明示를 缺케되엇는가 이에 對하야는 아즉 그眞相을 듯지 [illegible] 昨今의財界情勢를 綜合하여가지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가튼點을 들게된다 卽

첫재· 廣田內閣이 組閣完成을보기까지에 軍部와의 關係가 잇는만큼 財政經濟政策에잇서 그 積極化의 意圖가 잇슴을 거트로 보히라고하지만 實際에잇서 馬場藏相은 [illegible] 두라는傾向이 잇다 그럼으로 [illegible] 取하라는便이 [illegible] 自然히 漠然한것이 되고만것이 아닌가

둘재· 馬場藏相이 [illegible] 財政經濟方針에 對하야 [illegible] 생각지안코 다만 軍部 [illegible] 聲明 [illegible] 株式市場의 大暴落으로 結局 周章狼狽하야 第二次暴慢까지 보게된 經驗을 맛보지가 [illegible] 이때이며 더구나 十六日로부터 十七日까지의 株式市場은 政綱內容의 [illegible] 關係上 積極的明示가 잇슬것이라는 豫想人氣로 深刻한 不安氣分에 잇섯고 十七日 閣議에서 決定한 政綱內容으로 [illegible] 午後 入時까지 閣議가 [illegible] 하엿든것을 [illegible] 할수잇다

×

그럼으로 政綱을 압두고 緊張하엿든 財界人氣는 結局 泰山鳴動에 鼠一匹格으로 政綱內容은 相當히 순거운 結果가 되얏다 그렇다고해서 이로써 不安氣의 問題가 解消되는것이 아니고하면 그런것은 아니다 이政綱發表란 한고개를 넘엇이 넘어지만인제로부터 다시그政綱의 具體化란 큰고개가 압길에 노혀잇는마큼 結局은 다만 그時期를 延長한데끄치는것으로 볼수밧게업다

新財政政策은豫想背馳

"具體的進路의 何等明示가업다"

結局藏相聲明反覆而已

【東京電話同盟】廣田內閣의政綱은 金融界의 改善、稅制의改革、產業貿易의 伸張等等 項目的으로 매우 漠然히 述하엿슬뿐으로 過般 馬場藏相이 就任初에 發表한 聲明書를 다시 預金貸出利率等에 對하야도 漸次政府의 壓力으로써 이것을統制하라는것으로 보히며 이具體方法時期等은 經濟界의 動向을 가장左右할것이다 그리고 財政改革에 對하야도 傳하는바와가티 大衆課稅가 實行될境遇 國民生活의安定目標를 奈邊에 求할는지 經濟界로서도 非常時인만큼 一致協力을 覺悟하고 잇슴으로 具體案을아니보고서는 沈默을 직힐수박게업다 다만 新政策實施에잇서 어데까지 急激한 變革을 避하고 實情에卽한 漸進主義를期待할뿐이라고한다

壓縮

抽象化한것으로 何等具體的進路를 보힌것이 업서 經濟界로서는 靜觀할수박게업고 政策의 具體化를 異常한 關心을가지고서 展望할뿐이다 卽 馬場藏相은 熱心한 金融統制論者로 低金利를 實施하기 爲하야特殊銀行도統制强化하고 또한 거름을나아가 一般普通銀行의

生活

財政의要綱

【東京電話電通】廣田內閣의 新政綱은 財政政策에잇서서 國運의 進展에 適應한 稅制改革、金融改善을 緊急事라고 述하얏는데 그具體化는 總히今後의 調查立案에 待키로되고 馬場藏相으로서는 聲者財政聲明의 主旨에 則하야 大要如左한 財政政策實現에 邁進할 意志를 堅固히하고잇다。

一、稅制整理의斷行

一、官業、專賣、特別會計再檢討

가、官業의整理擴張

나、專賣의擴張

다、鐵道特別會計의繰金繰入

라、郵便料金의値上

마、特別會計의調整

一、國防產業의兩全

가、國防費의充實을期함

나、產業과 農村施設의 經費에 充分한 考慮를함

一、國債의 增發

一、低金利政策의 誘導

一、金融의 統制

金利低下促進

金融統制强化?

【東京電話電通】馬場藏相은 廣田內閣의 政綱發表에 基하야 財政經濟全般에亘하야 新政策을實施키로되어 事務當局을 督勵하고 近間具體策을 決定할方針인데 其中金融政策에關하야서는 過般親任式後發表한 聲明에 그輪廓을 明示함과가티 事業의 繁榮과 國民全般의 金融上의 負擔輕減과 公債政策의 圓滑한遂行을 圖하기爲하야 適當한 通貨政策과 低金利政策을 實施할 必要가잇는 旨를明白히 하고잇는터로서 廣田內閣의 金融政策 公債消化力維持의 立場으로 金利低下促進의 軌道를 進할은 當然하며 이에伴하야 金融統制의 强化가期待되는다。現在豫想되는 具體案은 大要如左하다

一、郵便貯金과 日銀의 金利 下

一、都市農村을通한 金利平準化의促進=卽 農村、中小商工業과 庶民金融을 圓滑케하기爲하야 勸銀、農銀等으로하야금 旣往貸付利子의 引下를하고 資金의 擴大를 行하며 金融의 統制에依하야 金利의 引下를實施함

一、中小商工業과 庶民金融의 負擔輕減=中小商工業者와 庶民階級에對한 金融上의 施設及機關을 整備하야 現在金利高의 集壓에 困窮한大多數國民의 金融上의 不利를 除去키에 努力할 다만馬場藏相은 財界에 急激한變動을與함과 如한政策의 實施는어데까지던지 이것을 避함을 聲明하고잇슴으로 財界에 重大한影響을 가진郵便貯金의金利引下와如함은 公債政策의 狀況에빠지지안는限 早急히 實現되지는 안흘것이라한다

馬場新財政政策도

結局穩健政策

今後具體化를重視

【東京電話電通】廣田內閣의 政綱은 十七日 發表되엇는데 問題視되던 經濟財政政策에 關하야서는 다만 稅制改革、金融改善等 經濟의 刷新에 努力하고 產業 貿易伸張에 盡力하야 國力의 基本을 培養한다는 極히 抽象的 言辭로 發表하얏고 何等具體策의 發表가 업슴으로 廣田內閣이 行코저 하는 政策方向은 漠然히 窺知할수 잇스나 結局 財界로서는 含蓄잇다고 思하는 以外에 何等 變한點을 把握할수 업서 從하야 今後의 具體的 政策發表의 展開를 보는 外에 他途가 업고 政府가 取코저하는 方向은 一應發表된터임으로 政府는 右方針에 從하야 實行에 努力하겟고 財政金融政策도 馬場藏相의 聲明內容과 如히 公債政策과 增稅實施 低金利實施의 積極化로서 邁進하리라고 보이는데 馬場藏相은 財界出身이오 財界現狀에 對하여서도 充分한 理解를 가지고잇슴으로 財界一般의 要望하고잇는 財政金融政策의 具體化에 際하야서도 極히 適正妥當한 態度를取하고 穩健한 政策을實行하야 何等의 無理가업슬것이라고 一般은 馬場藏相의 政治的手腕에 信賴하고 期待를가지고잇는 狀態이다

南浦滯貨一掃

四月中旬頃豫想

鎭南浦의 結氷中停滯되든朝鮮米는 三月十日 現在로 五十二萬三千石의 多量에 達하는데 그中 急賣物은 매우僅少하야 下旬解氷後의 移出朝鮮米의 船腹要求는 目下에 三月下旬十二萬石 四月上旬六萬石으로 四月中旬까지 大體過半數의 移出을보게된모양이라고

渾溝、水力發電

十五、六萬키로能力

【安東十八日發同盟】鴨綠江支流渾溝의水力發電을 調查키爲하야 滿洲電業會社雨宮技監、滿鐵長谷川技師及滿洲國服部技師의一行十名은 去月以來 朝鮮經由桓仁縣에가서 附近一帶에亘하는 水流調查를 하고잇는바 現在까지의調查結果는 約十五、六萬키로의發電能力은容易함이 判明되고 다시 詳細한調查를 한뒤 關係方面과 協力하야 具體的發電計畫을 進行케되엇다고한다

硫安의受渡困難

◇取引도閑散狀態

朝鮮內 硫安界는 實需期에直面하고도 高價旣契約品의 受渡問題로 取引은 매우閑散이오 市勢는 呼價에 不過하나 四圓七十錢가량이다 受渡에 對하야는 肥料會社肥料商間에 個別的으로 多少되엇스나 一般的의 受渡가 支障이 업시될은 어렵다고보아 關係方面에서 注目되다

裁縫機械輸入

依然激增의傾向

朝鮮內 裁縫機械需要는 繼續하야 今年에도 激增이繼續되고 二月末 五十七萬一千圓에 達하야 前年에比較하면 다시四割의激增이다 이것은 朝鮮內 好景氣로需要增加의 高級化가 原因이 되는데 累年의輸入高는 다음과갓다

七年	一二三、七七四圓
八年	三四三、五二五
九年	一、一九七、四五六、
十年	一、五九七、〇二七
十一年二月까지	五七一、三二六

朝鮮內殘存米數量

◇八百二十五萬石

比前年同期百萬石增加程度

日本內地는昨年에 凶作이엇고 또 消費量도 大體增加되여 最近殘存米의 發表를 보아도 前年보다 二百八十萬石이나 減少되엿다고하야 그동안 朝鮮米의 移出은比較的 好況이엇슬것이로되 그間의 移出狀況을보면 最近까지가 겨우 四十二萬石뿐으로 前年에 比하여 五十萬石假量 減退를보앗다 그理由로는 高價를 嫌한 實情이 甚하엿든關係로 보겟지만 一部에는 朝鮮農村의 景氣도多少 好轉되엿슴으로 어느程度까지는 消費量도 增大하지안엇슬가하는 觀測도 有力하다 그런데 這間朝鮮의 米界를보면 二月까지는 그래로 相當히 移出을보앗으나 三月에들어서는 非常히 減退하여 最近은 거이去來가 停止된 狀態에까지 빠지엇다 그동안 出廻米는 小農階級의 賣出에依한것이엇고 自作農以上級에서는 實情이 甚하엿든關係로 朝鮮內의 殘存米도 前年에比하여서는 百萬石은 增加를보앗다고 그方面의 有力者는 推算을하고잇다 이것은 昨年產米도百萬石이나 增加되엿슴으로 殘存米가 多少增加를 본것은 當然하다해도 日本內地의 凶作과 移出減의條件을 參酌한다면 現在朝鮮內殘存米推算高가 前年보다 百萬石增이라는것은 今後米界에 重大한 影響을가질것이다 但問題는 五十萬石移出減과 百萬石殘存米增이 消費增에 依한것이나 單純히 實情에依한것이나 그어느便이 더確實性이잇는가 市勢를左右하는 重要點이 될것이다 朝鮮의 殘存米推算은 調查하는데 適確性이업고 또政策上 發表되지못하고잇스나 槪略한推算을보면 前年의持越米五十萬石과 新米를 合하여 一千八百二十萬石에 移出四百二十萬石에 消費量年九百萬石으로하고 去四月二個月間에 六割五分(平時는六割三分)보되 今年은 農村消費增을 豫算하야 六割五分을보다)로 算하야 五百八十五萬石으로 計算하면 殘存米는 八百二十五萬石으로된다 이것은 極히 粗雜한計算임을免치못하나 大體로보아 그리 서도 根據를 두는바임으로 이에 依하여 今後米界의 動向을보는 根幹이 될것이다

新政綱別無新奇

株式市場多少反動高

廣田內閣의 新政綱發表待로 陰慘한 場面을 繼續하고잇던 株式市場은 十七日의 發表前은 朝取短期新東이 百二十五圓九十錢에까지 暴落하얏스나 新政綱의 發表는 자못 抽象的이오增稅、公債增發、經濟機構의 統制等에關하야 何等具體的 明示가업스므로 株式界는 泰山鳴動鼠一匹格으로 朝取市場은 東西兩市場의 一齊反撥을移하야 東新도 百三十二圓六十錢으로 前日後引보다 二圓五十錢高에寄하고 鐘新、大新、日產等의 花形株도 一齊히 一圓五十錢高乃至三圓의 反騰을보이엇스며 其他重工業株、電燈株、紡績株等도 三圓乃至七圓見騰이엇다

米日爲替少弱

【京城十七日發同盟】十七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一仙低 賣二十八弗九十六仙으로 二仙低 買二十八弗九十二仙으로 一仙低

◆東京爲替(十八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八分七	二十九弗
對英	一志二片卅二分卅一	一志二片

◆大阪爲替(十八日)

	賣	買
對米	二十八弗八分七	二十八弗十六分十五
對英	一志一片十六分十五	一志二片

取引停止

(三月十二日)▲機械業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七〇番地 美發商會 三好康平 (三月十三日)▲穀物貿易 京城府安國洞一二三番地 徐源

經濟界消息

○豐國製粉九州工場着工=豐國製粉의 九州工場은 三月中에 工場用地의 基地를 完了하고 四月初부터 工場建設에 着手하야 來春五月까지 第一期에 依한 六百바렐工場의 建設을 完了하고 六月의 新麥期부터 操業을 開始키로되엇다고

商況【十八日】

株式 少戾裡에 揉合

前場反高 昨後場恐怖崩落後急反撥되라는틈이어 今前場은 抽象的政綱發表로 具體的提示가업서 氣迷에 反應이엇스나 卽昨後引에 比하야 東新은 二圓五十高인 百三十二圓六十錢 大新은 一圓二十錢高인 七十八圓九十錢 鐘新은 二圓六十錢高인 百四十六圓二十錢 日產은 三十錢高인 七十二圓四十錢에 各付後更軟하야 東新一圓五十錢 鐘新五圓八十錢 日產二圓九十錢에各大引

後場揉合 後場은 東新百三十圓九十錢 大新七十八圓七十錢 鐘新百四十四圓七十錢 日產七十二圓八十錢에 低落寄後少幅揉合裡에 大引

昨年高價에서 東新五十圓低

十七日의 新內閣政綱、政綱發表를 압두고 產業統制强化、高率配當抑壓等을 株價로 悲觀하야 昨後에는 當地 東新이 百二十五圓九十錢에까지 慘落되고 東京東新은 百二十六圓에 떠러저 昨年 高價인 十一月二十五日의 百七十八圓에 比하면 實로 五十二圓의 暴下이며 二六事件前日인 二十五日 百六十二圓에 比하면 三十四圓의 過落이엿다 그리코나서 過般反動으로 百三十二圓臺에 反撥大引되엿는데 이것은 株價에 抽象的이엇든 政策政綱發表가 別無하고 今後 具體的實行을 기대리게되엇스며 利喰物等으로 目前反撥되어 買物도잇서 少堅이엇다가 다시 賣押되엇다

政策政綱發表

抽象的으로 曖然

恐怖的慘落인株式이 정작政策政綱이 發表되엇스나 그內容이 너무나 抽象的이기때문에 懸然하야 依然不安不去이오 今後未定된 政策이 어떠케實行케될것인지 具體的進行에依하야 株界는든든고두고 懸念을 박게될것으로보이엇다

明暗二樣影響

인푸레、데푸레相衝 矛盾된政策으로

廣田內閣의 新政策은 十七日夜에 發表되엇는바 新政策의 內容은이미 馬場藏相의聲明、軍部의 要望等에 依하야 大體方針이 暗示되어 財政經濟政策에 對하야 一般的으로 諒解되던것과 大差가업스나 그政策의 全面的遂行에 當하야는 矛盾에 逢着할것이 必然하고 이것을 如何히 調整할가가 重大한問題이다 卽 赤字公債의 增發 低金利政策의 實踐에 依하야 인푸레를 招來하는傾向과 稅制整理와 併行하는 增稅가 齎來할 데푸레金的傾向은 不絕히 明暗二樣의 影響을財界에 投할것이다 增稅키爲한 財源涵養必要와 經濟政策刷新의 中樞인 統制經濟에依한 產業의 萎縮、貿易伸張과 增稅制組織에依한 事業採算의 惡化等 新政策의 實踐과 程度範圍如何에 依하야서는 幾多의 困難이 豫想되는마름 抽象的 政綱發表만보고는 株界의 影響을 말할수업고 今後 政府의 具體的實行이 어떠케 되어가는냐를 重視할뿐이다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通貨反動人氣로 五分利債는 四十錢高 五分半四十錢高 米貨六分半九十錢 五分半四十錢高 佛貨도 十錢買進되여 一齊히 强堅이엇다(取引高二百枚)

甲 五分利	一〇二、四五
一回四分利	九八、九〇
佛貨四分利	一八八、八〇

今日財界 (十八日)

[illegible]

政策政綱發表 抽象的으로曖然

期米 保合裡에 少堅

前場少戾 昨後場低弱이 引續되어 卄九圓四十九錢에 後場止하엿든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卅一圓五十九錢이 一丁反落하고 卄九圓五十錢인 一丁高로 寄付後 阪地六十四錢으로 六十三錢에 止하엿다 五錢까지 返戾하엿다가 五十錢에 止하엿다

後場少堅 後場은 二十九圓五十一錢에 一丁高로 寄付後 新五十六錢에 少堅이고 五十四錢에 止하엿다

低落後의 一考

比較的强優勢

三月一日殘存米의 激減을 機로 하야 一時買氣濃厚하든米界는 一般的으로 期待하든 殘存米發表의 强材가 一巡한後일뿐아니라 第三次買上도 아즉 實行할 機微한 時期가아니라 馬場財政의 惡影響을 受한株界의 暴落과 共히 一步低落을 告하엿다 그러나 株價는 山崩一瀉의 利退에 比하야 俄然反撥을 示하고 米界도 旣히低落을 示한後이만치 比較的强優勢를 示하야 容易히 反落을 許하지 안흘것도 가트며 今年은 大體二個年繼續凶作을 한後임으로 農家의 經濟的 不安이 不無할것으로 惜賣를 차지할것이며 又는定期界의 買氣도 依然潛在할것이며 어느程度까지는 反落한다할지라도 結局은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正米事情이 無材料로 變方戰意가 無하고 形勢傍觀이엇다 今期는 場面이 殆히 閑散하고 中限과 如함은 新規取引이 一期米는 豐作을 懸하야 一時相當한 低價로 先約商談이 잇섯스나 其後의 情報에依하면 當代順調로 發育되엇에 不拘코 其後의 天候不良 하야 漸次悲觀人氣가 擡頭키에 至하야 今期市中市勢는 一期六

市場六感

株 廣田內閣의 政策이 發表는 되엇스나 그內容이란 從來보지 못하던 抽象的 漠然한것으로 무엇을 어떠케 할세음인지 暗然할뿐 ▲統制經濟移行時代이라 株界는 恐怖慘落이거듭되고 不安不去 東新이 百二十六圓(當地百二十五圓九十錢)이야 꿈이나 꾸어던일이냐 ▲이러케 되고보니 價位가튼것은 問題가아니오 東新가튼것은 에당초에 이러니 저러니 할거리가 못되다 ▲急激한 變革이 업시 積極政策을 實施하겟스니 東新도人氣만 安定되면 市勢가 恢復되리라는 平時생각을 가 ...

米 米와 株의事情은 各異한 만큼 株式이떠러진다고 쌀까지떠러진다는것은 한번생각하여볼일인걸 ▲今回의 株價暴落은 馬場政策의 惡影響을受함이엇스나 米에對한政策은 아즉何等의 變革이 이업다 ▲그럼에 도不拘하고 株式과同一한步調를取함은 一時的現象에 不過한일이엇다 ▲農村救濟는 舊內閣 ...

질지모르나 ▲低金利强化로將來인푸레가 招來되다드래도矛盾된政策이 具體的으로 實行되어가는동안에 두고두고 嫌氣悲觀이 繼續될것이니 東新은 永久생각은 꿈도꾸지말라는極端的弱氣가잇는데 世相을내다보면 그럴지도하다

의方針이나 新內閣의政策이同一한모양인데 米價의低落을 放任하지아늘것만은 事實 ▲第三次買上을 斷行하지아니할것을 後高米價를 防止하지안흘意思를暗示함이아닌가한 商談도不無 ▲果然六百十五萬石박게아니되는政府米로써 今後 高米價를阻止할가함이疑問 ▲當地場面은 阪地에比하야 軟優勢를示하는光景이나 深入할餘力이 업슬것도可期 ▲何如間 此邊에서十分繰返하다가 月末戰에入하야 一波紋을惹起할모양? ▲그러데大體의方針은 押目買가 得意이라고 硬派는 主張한다

各地正米

東城開散 定期保合으로 不買의 商狀을 不改하고 賣方이 極히 氣迷이엇다 九仁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五十錢

仁川不振 日本內地 實行不振의 市況이 極히 閑散하야 一二三等二十八圓七十五錢 四等二十八圓四十五錢 一等白米三十二圓五十錢 (approximate)

釜山閑調 市場實物 二等代으로 定期保合이오 賣氣가 全혀不振하고 依然當用小口의 賣物이 散見됨에不過하야다 取引高七九六叺 角ク三等廿八圓九十錢 四等廿八圓五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廿錢

大邱不動 漸次賣物 取引이 不振이오 產地의 高價待로 實物 角ク三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群山保合 日本內地의 低價로 商談이 意外로 不振狀態를 繼續하고 定期不透明으로 市況이 閑散裡에 保合인 萎ク三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錢

木浦不變 環境은 不改이나 產地가意外로下落인으로 市勢不變嗜인 丸木三等二十九圓丁四等二十八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期米 ◆朝取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朝取短期 / ◆東京現株 / ◆京城市中金融 / ◆海外經濟 / ◆金塊入價 / ◆對外爲替 / ◆京城正米 / ◆仁川正米大豆 / ◆京城綿布 / ◆京城綿糸布市勢 / ◆綿糸布商 / ◆滿洲商況 / ◆大阪三品 / ◆各地期米 / ◆大阪市中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 ◆各地正租市價 / ◆大阪綿花 / ◆大阪綿糸 / ◆大阪人絹 / ◆各地人絹 / ◆橫濱生糸 / ◆大阪砂糖 / ◆海外砂糖 / ◆시카고期米 / ◆鐵神油冲價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算定代引日步 / ◆朝取當期 /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趙後鎬米豆仲介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一六九三 一一六五

金·白·銀·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2)三三一六番 振替京城壹五壹五四番 地方注文{代金引換 送料先金}

株式 期米 仁川取引所 柳來恒商店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地方注文 代金引換 送料先金